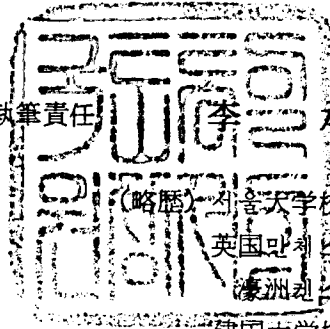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느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中長期政策

第三世界の 動向推移와 그것이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影響

研究執筆責任



李承憲

(略歷) 서울대학교 政治科卒 (1953)

英國만체스터大學院 및

濠洲劍士蘭드大學院 政治學博士

建國大學校 政治學教授 (1966 -)

刊行責任

李壽一

(政策企劃室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I. 第三世界の 發展過程과 特性	1
1. 非同盟中立主義의 抬頭와 民族主義理念	1
2. 非同盟會議와 第三世界の 擴大	3
3. 70年代에 와서의 變質—新國際經濟秩序의 追求	5
II. 第三世界の 最近動向	9
1. 第三次非同盟國頂上會談 (루사카 · 1970年)	9
2. 第四次非同盟國頂上會談 (알지 에 · 1973年)	10
3. 南北問題의 浮刻—各種國際經濟會議의 開催	13
4. 非同盟國外相會議 (리 마 · 1975)	15
5. 第五次非同盟國頂上會談 (콜롬보 · 1976)	17
6. 非同盟運動調整局 第一次會議 (뉴델리 · 1977)	22
III. 第三世界와 新國際經濟秩序	27
1. 戰後 開發途上諸國의 動向	27
2. 資源民族主義와 多國籍企業의 國際主義의 對決	31
3. 相互依存의 解決策의 摸索	35
4. 將來展望	40
IV. 第三世界와 南北韓關係	43
1. 南北韓의 第三世界에 對한 外交競合	43
2. 北傀의 策動과 第三世界의 反應	45
(1) 알지 에 頂上會談—第 28 次 유엔 總會	47

(2) 리마會議一第 30 次유엔總會	49
(3) 콜롬보頂上會談一第 31 次유엔總會	49
(4) 뉴·델리調整局會議와 北傀支援聲明	49
3. 大韓民國의 対応策	56
(1) 基本姿勢	56
(2) 政治協調와 安保·統一外交에 대한 支援確保	59
(3) 經濟·社會·文化面의 相互利益追求	61

I 第三世界の 發展過程과 特性

1. 非同盟中立主義의 抬頭와 民族主義理念

오늘날 世界政治와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第三世界の 比重은 大端히 커지고 있다. 그런데 第三世界の 概念內容은 매우 多義的 이다. 이는 지나간 30年間に 걸친 第三世界の 質的·量的 變遷過程을 反映하는 것이다. 事實 第三世界은 흔히들 非同盟中立主義國家群, 新生開發途上諸國, 또는 南北問題에 있어서의 兩方國諸國을 意味하는 複合概念으로 把握되고 있는데 第三世界の 理念的 性格, 構造的 特徵, 行動路線등에 관해서는 歷史的 考察을 通해 精密한 認識을 가질 것이 必要하다.

第三世界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勢力集團 또는 思想運動체가 世界政治舞臺위에 登場하게 된 것은 兩極化 冷戰體制下에 있던 1940年代末葉에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47年8月15日에 印度가 獨立을 達成한 後 네루 首相은 『어떠한 陣營에도 加担하지 않는 것이 外交的 粉糾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하여 積極的 中立主義를 追求하였는데 이러한 「네루外交」의 基本態度가 非同盟 中立主義의 原型이 되었다. 이에 따라 亞阿新生國家群안에서 非同盟中立主義가 胎動하기 始作하였다가 55年4月의 「네루」·「周恩來」會談에 合意를 본 「平和五原則」과 같은 달 亞阿 29個國代表가 參集한 「반둥」會議때 採択된 「平和十個原則」으로 그의 基本理念을 確立하였다. 그 核心은 自由·共產兩大陣營의 中間地帶에 位置하고 있는 中小國

(주로 亞阿・中近東의 新生開發途上國) 이 어느 陣營과도 同盟關係에 들어서지 않고 自國의 獨立・安全・發展 및 繁榮을 追求하려는데 있고 反植民主義・相互不可侵・平和共存・互惠平等・亞阿連帶・世界平和와 國際協調등을 標榜하였다.

그後 亞阿新生諸國은 國際社會에서 하나의 獨目的인 勢力集團을 形成하여 非同盟中立圈 또는 第三世界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過去에 西歐植民地였던 이들 新生國들이 하나의 新興集團勢力으로 強大國中心의 既存秩序를 拒否하면서 世界政治에의 積極的 參與者로 登場한 것은 實로 革命的인 일이었다. 이들 第三世界國家들의 革命的 理念은 畢竟 強烈한 民族主義로 表現될 수 밖에 없었다. 歷史의 새 局面을 마지하여 이들은 國家的 獨立과 統一 그리고 近代化의 成就를 가장 核心的 價值로 追求하였는데 西歐의 政治的 壓制와 經濟的 剝奪을 받았던 過去의 쓰라린 休驗에 대한 心理的 反動으로서 自然히 反植民主義的・反西歐的 性向을 띠우게 되었다.

하기야 「古典的 植民主義의 時代」는 끝났으나 新生開發途上國들은 歐洲經濟共同體와 같은 經濟블럭의 形成을 「新植民主義의 典型的 例」로 斷定하는 傾向이 있다. 그리고 先進國으로 부터의 援助를 過去의 植民統治로 부터 받은 被害에 대한 正當한 補償으로 解釋하는 非同盟國 指導者들의 態度에서도 그러한 感情의 痕跡을 뚜렷이 찾을 수 있다.

勿論 第三世界의 反植民主義는 西歐에만 겨냥된 것은 아니다.

1958年에 열렸던 全阿人民會議가 植民主義와 帝國主義는 다른 모

습을 띄고 올것이며 반드시 유럽으로 부터만 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公式的으로 宣言한 것을 보더라도 新植民主主義는 西歐勢力뿐만 아니라 共產勢力일수도 있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그러나 亞阿新生國들이 過去에 西歐上典으로 부터 被害를 보았다는 歷史的事實과 아직도 그러한 白人支配가 時代錯誤的으로 一部地域에 殘存해 있으며 더구나 人種問題에서 이들 新生國들에게 憤怒를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이 西歐의 白人이라는 当代의 事實때문에 第三世界諸國의 國際的 認識에서는 白人—西歐—既存國際体制의 觀念的 等式이 못박혀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國際的 態度에 있어서도 反白人—反西歐—反既存体制의 特性이 露出되고 있다.

2. 非同盟會議와 第三世界の 擴大

1957 年에 「가아나」가 獨立한데 이어 60 年에는 무려 17 個國이 獨立하여 이른바 「아프리카의 해」를 마지했는데 이들 亦是 非同盟中立主義를 標榜하고 나섬으로써 非同盟勢力은 더욱 커졌으며 61 年 9 月의 第 1 次 非同盟國 頂上會談을 轉機로 하여 國際政治上에 차지하는 非同盟國家群의 比重이 顯著하게 增大되었다. 이 第 1 次 非同盟國 頂上會談은 其實은 60 年의 第 15 次 유엔總會에서 「네루」·「스카르노」·「티토」·「넛셀」 및 「앵쿠루마」의 非同盟圈 5 首腦가 國際緊張緩和를 위하여 美蘇首腦會談을 要請하는 共同決議案을 提出한 것이 端緒가 되었다. 이 共同決議案은 後에 撤回되었으나 이것을 契機로 하여 非同盟諸國의 結束을 強化하려는 氣運이 일어

났으며 結果的으로 非同盟國頂上會談으로 發展을 보게되었던 「유고슬라비아」首都「벨그라드」에서 開催된 이 頂上會談에는 26個國이 參加하여 非同盟國의 資格要件, 非同盟運動의 座標等에 關係 論하였다. 이 第1次頂上會談後에 新生開發途上諸國은 經濟的 獨立에도 큰 關心을 보여, 이것이 62年 「카이로」에서 中立主義諸國經濟會議를 開催하는데 까지 發展하였으며 그것이 契機가 되어 國際聯合通商開發會議 (UNCTAD)가 1964年에 創設되었다.

그後 非同盟運動은 急速히 勢力을 增大하여 64年10月 「카이로」에서 開催된 第2次頂上會談에는 47個國이 參加하였다.

이같이 하여 非同盟中立主義國家群은 第三世界의 主軸을 이루며 國際政治上의 發言權을 높혀 나갔다. 그러나 60年代 後半期에 접어들면서 非同盟中立主義의 生成·發展에 絶對的 貢獻을 한 主役들이 政治的 失脚 또는 死亡으로 漸次 政治舞臺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非同盟圈内部에서도 國際情勢觀이나 非同盟中立主義路線에 關係 異見이 露呈되었으므로 『非同盟中立主義의 時代는 끝났다』는 性急한 判斷까지 나왔었다.

그러나 70年9月 「잠비아」首都 「루사카」에서 開催된 第3次頂上會談에는 64個國이 參加하여 非同盟運動이 健在함을 誇示하였는데 이 會議以後 非同盟運動의 主導權은 反美色彩가 強한 아프리카의 急進的인 政治指導者에 의하여 掌握되었다. 그後로도 73年9月 「알지에」에서 開催된 第4次頂上會談에는 亞阿·中近東 및 中南美地域으로 부터 75個國이 參加하였고 76年8月 「콜롬보」에서 開催된

第5次頂上會談에는 86個國이 參加하여 第三世界가 量的 肥大를 繼續해 왔으나 質的인 面에서는 後述하는 바와 같이 相當한 變化를 겪어 왔다. 이들은 그동안 國際聯合總會나 그밖의 여러 國際會議場에서 中東問題·印支問題·韓國問題·南阿聯邦人種差別政策·植民地解放問題등 國際問題에 관하여 自體의 政策的 立場을 밝히고 UNCTAD會議·產油國機構會議등과 關聯하여 經濟的 後進國들의 權益을 擁護한 外에도 國際海洋法會議, 世界人口會議, 世界環境會議 등에서 開發途上國들의 利益을 위하여 行動統一을 하여 왔다. 그러면서도 對外政策路線의 細部에 들어가서는 親蘇·親中共·非共產·親美등 諸派로 갈려 嚴格한 中立性이 欠如된 面도 있다. 다음에 그 細部的 變質·變貌過程을 敷衍해 본다.

3. 70年代에 와서의 變質—新國際經濟秩序의 追求

그 첫번째 變質要因은 國際的 環境狀況이다. 60年代後半期以後 國際政治構造가 多元化되고 「데탕트」가 進展됨에 따라 그리고 既往의 植民地가 거의 모두 獨立을 達成함에 따라 非同盟中立主義는 그 呼訴力이 鈍化되고 이에 따라 非同盟圈內部的 凝結力이 弱化되고 그 革命的 體質이 退化되는 것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그러나 또한 面에 있어서는 非同盟中立主義의 存在價值를 冷戰構造와의 函致關係에서만 찾으려는 것을 止揚하여 보다 積極的인 面에서 再定立하여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게 되었다. 즉 本來가 非同盟中立主義의 本質은 戰後의 世界史的 狀況의 展開를 自主的 立場에서 把握하여 이에 積極 參與하려는데 있는 만큼 이는 어떤 「固定된 政治

的・埋念的 概念」은 아니며 變動하는 國際的 狀況에 따라 變化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第一次非同盟國頂上會談때 定立된 非同盟에 관한 定義는 그後의 事態進展過程에서 相當히 變質되었다. 즉 非同盟會員國의 資格要件은 첫째 어떠한 陣營에도 屬하지 않고 平和共存原則에 立脚하여 自主的으로 政策을 遂行할 것 둘째, 民族解放運動을 無條件 支援할 것.

세째, 冷戰에 말려 들어갈 어떠한 多刃的 軍事同盟에도 加入치 않을 것,

네째, 東西陣營의 大國과 雙務的인 軍事同盟을 締結치 않을 것,

다섯째, 軍事條約에 의한 軍事基地를 自國領土안에 設置하지 않을 것등을 規定하였으나 70年代中葉에 이르러서는 實際로 大國과 軍事同盟을 맺고 있어도 그들의 政策이 自主外交에 立脚한 獨自路線을 밟고 있다고 認定되면 非同盟會員國으로 받아들이는 傾向이 생기고 있다. 이러한 趨勢는 反帝國主義・反植民主義 그리고 世界的 平和的 共存에 寄與할 수 있다는 前提만 선다면 設或 既存軍事블럭에 加盟하고 있다 할지라도 現實的으로는 非同盟中立主義의 큰 沮害要因은 되지 않는다고 看做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그 두번째 變質要因은 南北問題의 抬頭에 따르는 經濟的 獨立에의 要求增大이다. 17億이 넘는 巨大한 人口의 低開發國民들을 擁하고 있는 第三世界는 地域的으로 中南美로 부터 亞阿・中近東에 이르기 까지 分散되고 있으며 그 歷史的・社會文化的 背景과 政治的 性向이 多樣한데다가 經濟水準에 있어서도 一人當 國民所得이 8,000 弗이 넘는 「쿠웨이트」와 같은 富國으로 부터 겨우 70 弗

線을 맴돌고 있는 「부룬디」나 「루완다」와 같은 極貧國에 이르기 까지 千差萬別이어서 처음부터 第三世界는 同質的이고 凝結力이 강한 勢力集團으로 出發한 것은 아니었다. 그에다가 같은 第三世界안의 開發途上國사이에서도 貧富의 隔差가 漸漸 더 벌어져 가고 있으며 73年의 石油被動以後는 第三世界内の 非產油國이 最貧國으로서 別途로 第四世界를 形成케 될 狀況에 이르러 第三世界の 内部的 龜裂現象이 深刻化되고 있다.

어쨌든 國民經濟가 第三世界の 가장 큰 内部的 問題가 되어 왔다. 여기에 있어 第三世界の 指導者들은 社會主義的 方式을 통한 計劃的 近代化가 經濟的 自立實現의 捷徑이고 그러한 經濟自立이 그들 國家의 政治的 獨立을 名實相符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가장 緊要한 基盤이라고 믿어 왔다. 그리고 이들은 平等主義的인 社會正義의 實現에 注力해 왔다. 以上과 같은 社會主義的 性向이 既述한 民族主義的 性向과 더불어 第三世界の 理念的 特性을 이루어 왔다.

第三世界는 既述하다시피 61年의 第1次非同盟國頂上會談以後 經濟 開發問題에도 集團的 關心을 表示하기 始作하더니 國際政治의 多元化의 데탕트가 進展을 본 70年代以後는 經濟的 次元의 南北問題에 熱을 올려오고 있다. 더욱이 73年 10月의 中東戰爭을 契機로 噴出된 中東產油國의 資源民族主義 乃至 第三世界の 經濟的 民族主義는 유엔特別總會 UNCTAD會議, 非同盟各級會議에서 新國際經濟秩序의 創成을 強力히 要求해서 今日起 이르고 있다. 事實 非同盟諸國의 共同目標는 從前의 政治的 側面으로 부터 經濟的 側面으로 重點이 옮겨져 全世界的인 階級鬭爭」(Global Class War)의 過程에서

第三世界の 國際階序의 地位를 높히려 하고 있다.

結局 異質的 構成要素와 多樣한 利害關係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第三世界를 結束시키고 있는 最大의 共通分母는 富의 公正한 分配, 즉 開發途上諸國도 先進國들과 함께 豊穡을 누리하고자 하는 慾求라고 할 수 있다. 데탕트時代에 알맞는 非同盟概念再定立의 必要性은 이미 73年의 「알지에」會議때 指摘되었거니와 앞으로 廣義의 第三世界構成國들은 抗議集團을 벗어난 建設集團으로서 政治的·經濟的 權益의 均衡에 立脚한 普遍的 秩序의 形成에 이바지 해 나가야 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全體的 考察을 背景으로 하여 以下 最近의 動向에 關해서 詳論한다.

II. 第三世界の 最近動向

1. 第三次非同盟國頂上會談 (루사카 · 1970 年)

1970 年 9 月 8 日 부터 10 日 까지 3 日 間 「아프리카」의 「잠비아」國首都 「루사카」(Lusaka) 市에서 開催된 「第 3 次非同盟諸國元首 또는 政府首班者會議」(通稱 第 3 次非同盟國頂上會議 또는 首腦會談) 에는 53 個會員國과 11 個 옵서버國 合計 64 個國이 參席하였다. 이 會議의 一般主題는 「國際關係의 民主化」 「自己依存」 및 「非同盟諸國間의 經濟協調」였다. 1964 年 「카이로」에서 開發催되었던 第二次非同盟國間 頂上會談과 이 「루사카」會議과의 사이에 6 年이란 歲月이 經過되였기 때문에 非同盟運動은 숙은것이 아니냐는 風說이 西方諸國사이에 한참 떠돌아 다녔다. 그러나 이러한 風說은 會議參加國들이 「平和 · 獨立 · 開發 · 協調 및 國際關係의 民主化에 관한 宣言」으로 共同의 立場을 再確認한 것으로써 消散되고 말았다.

「루사카」會議에서 注目된 것은 南베트남臨時革命政府의 外相인 「구 · 엔 · 티 · 빈」女史가 參席하였다는 것인데 이것은 非同盟諸國이 帝國主義와 新植民主義에 反對하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루사카」會議後의 事態檢討를 위한 非同盟國外相會議가 1972 年 8 月 8 日 부터 11 日 까지 「가이아나」國首都 「조지타운」市에서 開催되었는데 이것은 非同盟國會議가 西半球에서 開催된 첫번째 경우였다.

2. 第四次非同盟國頂上會談 (알지에 · 1973年)

이어 1973年 9月 5日 부터 9日 까지 「알제리아」國首都 「알지에」市에서 「第4次非同盟國元首 또는 政府首班者會議」가 開催되었는데 이에는 75個會員國 27個 옵씨버國 또는 옵씨버機構 그리고 3個來賓國 (歐洲)이 參加하였다. 當時의 世界共同社會에 存在하고 있던 國家總數의 半以上이 參席한 同會議는 그때까지의 非同盟頂上會議中에서 가장 成功的이었다고 하여 同會議參席者의 한사람은 그理由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로 國際的 政治氣象이 훨씬더 누구러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中共은 유엔代表權을 獲得하였으며 데탕트政策이 美·蘇와 美·中共間에 進展되고 있었다. 그리고 越南戰爭은 1973年 1月の 파리協定으로 公式 終結을 보고 있었다.

둘째로 非同盟運動에 대한 支持基盤이 擴大되어 第三世界 特히 西半球의 많은 나라와 歐州의 非同盟諸國을 會員國으로 擁하게 되었다.

셋째로 이 會議는 事前準備가 잘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同會議는 特定問題들에 관하여 보다 具體적으로 그리고 보다 精密히 檢討하고 問題의 外觀과 實質을 職分하는 가운데 世界의 現實에 관하여 보다 透徹한 認知內容을 갖추고 있었다.

元來 非同盟諸國은 그 一貫된 政策으로서 諸般解放運動을 支持해왔는데 이 「알지에」會議에서는 이것이 反覆해서 表明되었을 뿐만 아니라 極大化되고 具體化되었다. 즉 同會議는 『모든 形態의 支配와 搾取에 抗拒하는 被壓迫人民들의 解放鬪爭과 完全히 隊列을 함께

한다』하여 南아프리카의 解放運動을 支持하는 決議(南아프리카의 隔離 및 人種差別에 관한 決議 第1項)로 부터 「포트·리코」의 自決鬪爭을 支持하는 決議(포트·리코問題에 관한 決議第12項)에 이르기 까지 많은 決議를 通過시켰다. 以上과 같이 解放運動을 支持하는 立場은 勿論 平和와 軍縮을 支持하는 立場은 何等 새로운 것이 아니고 「반동」會議以後 非同盟諸國의 一貫된 指導原理인데 이 「알지에」會議에서 이러한 立場이 한층더 鮮明하게 表示되었다.

그러나 무어니해도 이 會議를 보다 實質的인 것으로 만든 것은 同會議가 經濟狀況을 分析하고 經濟問題에 대한 解決策을 提議한데서 있다.

오늘날 開發途上國이 차지하는 世界 卽 第三世界는 人類總數의 70%를 차지하는 26億 人口를 擁하고 있으나 世界總所得의 30%밖에 안되는 것으로써 生存을 維持해 나가고 있으며 그 26億住民中 8億은 文盲이고 거이 10億이 營養失調나 飢餓 狀態에 빠지고 있고 9億의 一日當所得은 30美仙도 못되는 꼴이다. 이와 같은 深刻한 狀態에 빠진 原因을 究明하지 않고는 經濟問題에 관한 健實한 分析을 할 수 없는 것인데 同會議는 『植民主義와 帝國主義를 追求하는 國家들은 「반동」會議를 轉換點으로 한 広範한 政治的 解放運動에 걸리어 날 수 없었으나 開發途上諸國의 資源에 대한 抑制를 다른 形態로 持續시키고 그들의 모든 特權과 生産品 및 用役市場을 確保하기 위하여 自身을 適應시켰다』고 指摘하였다. 이러한 狀況診斷에 異議를 提起하는 第三世界國家는 거이 없었으며 따라서 「알지에」會議는 一般的 解決策으로 開發途上諸國이 『그들의 基本的

利害를 繼承 防護해 나가며 그들의 開發課業을 스스로 組織・運營해
나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 自身の 資源에 個別的 또는
集團的으로 依存할 것과 그들의 天然資源과 모든 國內活動위에 國家
主權을 行使할 것』을 勸告하였다. 또한 非同盟諸國은 「반동」會議
以後 帝國主義 및 植民主義國家들이 그 自体를 轉型하는 伸縮性を
보였는데 이것은 이른바 「多國籍企業體」 또는 보다 正確히 말해서
「國家橫斷的會社」(transnational Companies)의 擴張에서보다 더
鮮明하게 들어난 곳은 없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하여 同會議는
『開發途上諸國의 主權을 侵害하고, 不干涉의 原則과 그들의 政治的・
經濟的 및 社会的 進歩의 基本的 先行要件이 되는 人民의 諸般權利
에 違背되는 國家橫斷的 會社라는 受諾할 수 없는 慣行을 世界輿論
앞에 糾彈한다』고 露骨的인 表現을 썼다. 그리고 나아가서 『開發
途上諸國을 工業先進國에 從屬시키는 經濟財政關係의 體系를 質・量兩
面으로 變換시킬 것을 目的으로 하는 世界的 戰略의 테두리 안에서
國家橫斷的 諸會社에 대하여 非同盟諸國이 共同行動을 取하도록 周旋
할 것』을 勸告하였다.

그밖에 「알지에」會議에서는 『民族解放運動의 鬪爭效果를 增大시키
기 위하여 支援資金을 設定할 것』 『解放運動代表들의 旅行을 便利케
하기 위한 手段을 提供할 것』 그리고 『非同盟國의 首都에 解放運
動의 事務室을 開設할것』등 特殊한 解決策을 提議하였다. 그리고
既往에 非同盟諸國이 가장 等閑히 하였던 主題인 「文化的 帝國主義」
에 관해서도 決議를 하였다. 즉 「民族文化의 保存과 發展」에 관
한 決議文에서 同會議는 『帝國主義의 活動은 全的으로 政治・經濟分

野에만 局限되지를 않고 文化・社会分野에 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은 確認된 事實이다』라고 指摘하고 『民族文化의 主体性を 再確認하고 植民時代의 害로운 結果를 除去할 必要』를 強調하였다. 「經濟協調를 위한 行動計劃」의 第 13 項에서 同會議는 거기 全적으로 美國의 支配下에 있는 「大量報道의 分野에서 一致된 行動」을 取할 것을 勸告하였다. 언제나 認知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實際에 있어 美國의 文化的 帝國主義의 樞軸을 이루고 있는 것은 「意識産業」이라는 認識에서 同會議는 『現在 提案되고있는 國際聯合大學(United Nations University)에 非同盟에 관한 特別研究部門을 設定하여 變化하는 世界秩序안에서의 非同盟運動의 歷史的 進化過程과 現在 및 將來의 役割에 관한 研究를 促進시킬 것을 國際聯合事務總長에게 促求』하였다. 同會議는 또한 『開發途上諸國의 國家利益・地域利益 및 地域間 利益이 되는 課題를 研究하고 研究訓練用 奨學金を 提供함으로써 科學・技術要員의 訓練을 促進시킬 科學・技術研究所를 地域水準 또는 地域間水準에서 設置할 것』을 勸告하였다.

3. 南北問題의 浮刻—各種 國際經濟會議의 開催

1973 年の 「알지에」會議以後 非同盟諸國에 重要性이 있는 國際的 事態發展中 特히 主要한 것을 列挙하면 다음과 같다.

(1) 「第三世界地域으로 波及해 온 冷戰的 緊張事態 特히 原料와 世界資源의 問題를 討議하기 위한 國際聯合特別會期가 1974 年 4 月 10 日 「알제리아」에 의해 召集되었다.

(2) 「파레스타인」解放機構議長인 「야실・아라파트」가 1974 年 11 月 13 日 國際聯合에서 演說하였다.

(3) 天然資源과 通商戰略에 關係 討議하고 「새 經濟秩序의 諸目標을 設定하며 이러한 諸目標을 達成할 方法을 選定하기 爲하여」第三世界의 110個國家가 參席한 가운데 「세네갈」首都 「다카르」에서 1975年2月4日부터 5日間 會議가 開催되었다.

(4) 歐洲經濟共同體와 「아프리카」·「카리비아」海 및 太平洋地域의 46個 開發途上諸國을 連結시킬 것을 目的으로 하는 5個年條約이 1975年2月28日 「토고」國首都 「로메」(Lomé)市에서 締結되었다.

(5) 「아프리카」에서는 最初로 國際聯合協會世界總聯合의 地域會議가 「가아너」首都 「앗크라」에서 60名의 代表와 傭兵들이 參席한 가운데 一週日間에 걸쳐 開催되었는데 이때 參席者들은 『아프리카의 全面的 解放은 宗教와 正義를 完全히 無視하는 帝國主義者들의 偽善에 比추어 武力鬭爭에 의해 가장 잘 實現될 수 있다』고 宣言하였다.

(6) 1975年4~5月에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解放勢力은 勝利를 건우고 그 即時 非同盟政策을 固守할 것을 宣言하였다. 이 印支三國의 共產化를 轉機로 하여 東南亞의 堅固한 親美國家인 泰國·말레이시아·比律賓등이 그들의 對美政策을 再評價하고 새로운 中道路線을 取하기 始作하였다.

한편 美國도 態勢를 다시 가다듬어 亞細亞太平洋地域에서는 濠洲·뉴질랜드·싱가폴·印尼·日本·韓國등과의 紐帶를 重要視하고 全世界的規模로는 아프리카·亞細亞 및 南美의 開發途上諸國과의 關係를 美國外交政策의 緊要한 要素로 삼을 것을 밝혔다. 美國은 또한 世界的規模의 軍事戰略을 再評價하는 가운데 亞細亞太平洋局面에서는 大韓民國에 小規模의 抑止戰力을 殘留시키는 外에는 亞細亞大陸에서 美國軍

隊를 撤収시키고 그代身 印度洋의 美海軍力을 強化하는등 大陸 앞 海域에서 美海空軍力을 強化하고 日本·比律賓 및 印尼를 運하는 島嶼連鎖部分의 安保에 重点을 둘 것임을 밝혔다. 그런데 이에 조금 앞선 75年3月에 「하바나」에서 開催된 會議때 印度의 차반(Y. B. Chavan) 外相은 美·蘇間의 戰略的 競合場이 될 可能性이 있음에 비추어 印度洋을 平和地帶로 宣布하려는 構想을 提示한 바 있었으며 結局 이 問題는 緊急을 要하는 事項으로서 76年의 콜롬보非同盟頂上會議때 上程되어 決議가 이루어졌다. 그밖에 「포드」行政府末期에 이르러 美國의 「슈레지저」國防長官이 核武器使用 可能性에 言及한데 刺戟을 받아 76年의 콜롬보頂上會談때에는 平和·安保問題와 關聯하여 核武器使用禁止에 관한 決議가 採択되었다.

4. 非同盟國 外相會議(리마·1975年)

76年에 「콜롬보」에서 開催된 第五次非同盟國頂上會談을 準備하기 위한 外相會議가 75年8月25日부터 30日까지 「페루」首都 「리마」(Lima)에서 開催되었다. 이 「리마」會議에는 81個國이 正式會員國으로 參席한 外에도 17個 옵서버國 乃至 옵서버 機關 및 9個 來賓國이 參席하였는데 이 會議에서 採択된 主要한 決議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 民族解放運動에 대한 支持를 繼續한다.

(2) 「파레스타인」과 北韓이 正式 會員國으로 加入하는 것을 承認한다.

(3) 平和地帶를 創設하여 眞正한 獨立을 確保하고 外國基地를 撤廢하는데 대한 印度洋 및 東南亞 沿邊諸國의 要求를 支持한다.

(4) 國際聯合의 役割과 效用性을 強化한다.

(5) 國際情勢를 分析하고 非同盟諸國 및 開發途上諸國間의 協調에 관한 具體的 提案을 마련할 研究 및 情報센터를 設置함으로써 情報의 分野에서 協調한다.

(6) 「유고슬라비아」가 自國內에 設置할 「公企業管理센터」에 參與하도록 非同盟諸國을 招請하고 同센터의 定款을 採択할 開發途上諸國會議를 召集하자는 提議를 採択한다.

(7) 情報와 大量通信媒体를 拡散시키고 1975年 「벨그라드」에서 運營을 開始한 非同盟諸國報道機關聯合體 (a Pool of News Agencies of Non-Aligned Countries) 를 制度化하는데 協調한다.

(8) 非同盟諸國의 經濟的·社會的 發展을 위한 連帶基金을 設置한다.

(9) 開發途上諸國의 原料輸出入業者協會評議會를 結成한다.

(10) 「베트남」·「리오스」 및 「캄보디아」의 再建을 위한 連帶基金을 設置한다.

(11) 1976年 8月 16日부터 19日까지 第五次非同盟國頂上會談을 開催하되 이에 앞서 8月 9日부터 11日까지는 外相會議을 연다는 「스리·랑카」의 提議를 正式으로 採択한다.

(12) 後에 決定되는 日字에 「하바나」에서 第六次 非同盟國 頂上會談을 開催하겠다는 「큐바」革命政府의 提議를 受諾한다.

5. 第五次非同盟國頂上會談(콜롬보 1976 年)

1976 年 8 月 16 日 부터 19 日 까지 「스리랑카」 首都 「콜롬보」 에 서 開催된 第 5 次非同盟諸國國家元首會議에는 全世界 86 個國이 參席 하였다. (1961 年 「벨그라드」 에서의 第 1 次非同盟頂上會談時는 26 個國, 1964 年 「카이로」 에서의 第 2 次頂上會談時는 47 個國, 1970 年 「루사카」 에서의 第 3 次頂上會談時는 64 個國, 그리고 1973 年 「알제에」 에서의 第 4 次頂上會談時는 75 個國이 參席하였었다) 86 個의 現會員國은 世界의 모든 大陸을 網羅하고 多様な 經濟體制 社會體制 및 政治體制를 代表하고 있다. 同會議錄은 이와 같은 會員國數의 增加는 非同盟運動에 대한 執着度가 增大하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며 이러한 現象은 「非同盟運動의 効率性에 관한 認識이 커지고 있는데 婦因한다」 고 자랑하고 있다.

參考로 第 5 次非同盟國頂上會談에 參席한 나라의 이름을 列挙해 보면 다음과 같다.

<公式會員國> (86 個國)

아프가니스탄, 알제리아, 안고라, 알제틴, 바아레인, 뱌그라데쉬, 베넌, 부탄, 보스와나, 버어마, 브룬디, 카메룬, 케이프, 벨라 中央아프리카共和國, 차드, 코모로스, 콩고, 큐바, 싸이프러스, 에집트, 赤道기니아, 에치오피아, 가본, 감비아, 가아나, 귀나, 빗사우, 가이아니, 印度, 印尼, 이라크, 아이보리코우스트, 자마이카, 몰단, 캄부치아, 켈야, 北越,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레베리아, 리비아, 아랍共和國, 마다가스칼, 마레이지아, 말다이브즈, 말리, 말타, 마우리타니아,

모리샤스, 모록코, 모잠비크, 네팔, 니젤, 나이지리아, 오만, 팔레스티나
解放機構, 파나마, 페루, 과탈, 르완다, 싸오토메 및 프린시페, 사우디
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즈, 시에라·레온, 싱가포르, 소마리아, 스리랑카,
수단, 스와질랜드, 시리아, 아랍共和國, 탄지니아, 토고, 트리니닷드 및
토바고, 튀니시아, 우간다, 聯合아랍太守國, 어퍼볼타, 越南社会主义共
和國, 예멘, 아랍共和國, 예멘人民民主主義共和國, 유고슬라비아, 자이레,
잠비아; (「베리제」는 投票權없이 參席)

<움저버>

발바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에쿠아도르, 살바도르, 그레나다, 멕시코,
우루과이, 베네즈엘라.

아프리카國民會議(南아프리카), 짐바브웨 아프리카人國家評議會, 巫阿
人民團結機構, 아랍聯盟, 지부티解放運動, 이스람會議, 아프리카團結機構,
아자니아汎阿會議, 포토·리코社會黨, 소마리·코우스트解放戰線, 西南아프
리카人民機構 國際聯合

<來賓國> (7個國)

奧地利, 핀란드, 比律賓, 葡萄牙, 루마니아, 瑞典, 瑞西

이 第5次非同盟國頂上會談에서는 다음과 같은 諸文書를 採択하였다.

· 政治宣言

1. 序言
2. 會員國의 增加
3. 非同盟의 政策과 役割
- 7) 巫細巫
- 나) 아프리카
4. 國際緊張의 緩和
5. 帝國主義·植民主義
新植民主義 및 非植民化
6. 南部아프리카
7. 人種主義 및 人種差別
과의 鬭爭
8. 中東事態
9. 팔레스타인問題
10. 싸이프러스

11. 캄푸치아 12. 라오스人民民主主義共和國 13. 越南社會主義共和國
 14. 朝鮮 15. 南美諸爭點 16. 印度洋平和地帶案 17. 軍縮과 安保
 18. 國家內政에 대한 干涉 19. 國際聯合 20. 政治와 經濟
 21. 言論代行機關의 集結所 22. 結語

々 經濟宣言

1. 序言 2. 解放 및 獨立을 위한 鬪爭 3. 現在의 國際經濟
 狀況과 開發途上國의 展望 4. 非同盟과 經濟開發 5. 新國際經濟
 秩序 6. 集團的 自己依存, 7. 世界經濟테두리안에서의 相互依存
 8. 結語

々 經濟協力を 위한 行動計劃

1. 原料 2. 通商 3. 金融 財政協力 4. 工業化 5. 食糧·農業
 6. 漁業 7. 運輸業 8. 通信 9. 保險 10. 公企業 11. 保健
 12. 技術協力 및 諮問用役 13. 科學 技術의 開發 14. 雇傭 및
 人的資源의 開發 15. 開發에 있어서의 女性의 役割 16. 研究 및
 情報體系 17. 觀光事業 18. 國家模斷的 協力和 外國의 個人投資
 19. 核에너지 20. 스포츠

々 政治關係決議(21 個項目)

々 經濟關係決議(12 個項目)

々 調整局의 構成 및 委任事項에 관한 決議

非同盟諸國의 全體的 活動方向을 示喚하는 것으로서 特히 注目
 되는 것은 「政治宣言 第3項 非同盟의 政策과 役割」에 관한 部
 分인데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8) 本會議는 1961年の 第1次頂上會談以後 15年間に 생긴 深刻한 變化를 檢討하였으며 現時야 말로 非同盟의 役割을 評價하기에 時機適切하다고 생각하였다. 本會議는 非同盟의 役割과 重要性이 增大된 同會員國들이 非同盟의 本質的 特性을 그대로 保存하고 그의 諸原則과 諸政策에 대한 不變의 忠誠心을 維持하고 非同盟運動의 統合성과 連帶性에 대한 威脅을 가장 잘 防禦하는 方便으로서의 諸決定事項을 完全히 尊重하는데 끈임없이 注力할 것이 避할 수 없는 課題로서 要求됨에 이르렀다.

9) 非同盟은 諸國間의 平和와 安全을 探求하려는 人類의 努力과 새롭고 公正한 國際的 經濟·社會 및 政治秩序를 樹立하려는 人類의 決意를 象徵한다. 그것은 모든 形態와 兇頑樣相의 帝國主義와 그밖의 모든 形態의 外國支配에 反對하는 鬪爭에 있어서의 生命力이다. 非同盟은 自由와 自決에 대한 모든 人民의 權利와 開發 및 國際問題解決에의 參與를 위해 自身の 独自の 戰略을 追求할 모든 國家의 權利를 支持한다. 그것은 그 어떠한 部面으로 부터의 壓迫과 支配의 政治에 대해서도 抵抗을 強化한다.

10) 非同盟諸國은 世界의 紛爭은 不可避한 것이 아니라고 언제나 생각해 왔다. 그들은 新生諸國이 緊張을 緩和하고 國際平和를 守護하는데 擔當할 重要한 役割을 지니고 있다고 断定한다. 그들은 國際平和가 勢力均衡의 基礎위에 세워질 수 있다든가 安全保障은 權力陣營과 強大國과의 軍事同盟에 合流하는 나라들에 의해 確保될 수 있다고 하는 見解를 물리쳐 왔다.

非同盟諸國은 國際協調의 原則을 確固한 世界秩序의 基礎로서 一貫해서 崇尚해 왔으며 對決이야 말로 國際禮讓에 代置되는 唯一의 方途라는 觀念에 反對해 왔다.

11) 非同盟運動이 陣營에 의해 賦課된 分裂을 超越하는 眞正한 獨立과 國際協調의 原則을 始終一貫 支持해온 結果 壓側의 多數의 國家들이 이들의 原則을 受諾함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들의 原則은 世界의 殘余國家들로 부터도 尊重되는 數가 늘기 始作하였다.

12) 非同盟諸國간의 連帶와 그들간에 增大되는 協力は 國家的 獨立위에 세워진 새 國際秩序와 平等, 相互信賴 및 正義에 立脚한 國際協調의 進化에 實質적으로 寄與하고 있다.

13) 本會議는 數百 數千萬 人民들로 하여금 獨立과 自由를 얻게 하고 多數의 新生主權國家를 抬頭케 하였던 民族解放鬪爭에 있어 非同盟運動이 遂行한 役割을 強調하였다. 이는 植民主義, 帝國主義 新植民主義 및 그밖의 모든 形態의 外國支配에 대한 이들 人民의 勝利를 讚揚하였다.

14) 本會議는 非同盟運動이 世界의 모든 地域에 繼續 擴張되어 가고 있는것을 歡迎하였다. 同運動은 緊張緩和와 平和的 手段에 의한 國際問題의 解決에 크게 貢獻해 왔다. 本會議는 非同盟運動이 世界를 對立陣營과 勢力圈으로 分割하는 것을 防止하는데 이룩한 貢獻에 注目하였다.

15) 本會議는 非同盟運動이 國際關係의 基礎로서 提昌한 平和共存의 原則이 世界共同社會로 부터 廣範한 承認을 얻어온 事實을 滿足과 더불어 注目하였다.

非同盟諸國이 時宜에 알맞게 先導的 役割을 한 結果 世界共同社

회는 衡平和正義에 立脚하여 새 國際經濟秩序를 創造할 것을 決定함에 이르렀다.

16) 本會議은 非同盟政策이 主要한 國際問題의 解決을 가져올 政治 經濟關係의 새로운 公正한 體制를 創造하는데 独自の 活力으로서 自己定立을 하였음을 認定하였다. 事實 非同盟諸國의 參與가 大部分의 國際問題의 解決에 있어 決定的 要素가 되어 왔다.

17) 最近의 事態發展의 結果 單純한 形式的 主權과 識別되는 意味에 있어서의 國家의 眞正한 完全獨立을 確保하는일의 重要性이 高揚되었다. 往往 支配까지 가져오게 되는 國家間의 不平等關係의 問題는 繼續 攪亂의 現象이 되고 있으면서 甚至於是 一部國家가 애써 얻은 自由까지 無効化시키고 있다. 오늘날 非同盟諸國의 主要課業中の 하나는 如前히 新植民主義 및 이와 類似한 支配形態로부터 發生되는 不平等關係 및 外國支配와 鬭爭한다는 것이다.

6. 非同盟運動調整局 第一次會議 (뉴델리 1977年)

1976年 8月 「콜럼보」에서 開催된 第5次 非同盟國頂上會談에서는 非同盟運動을 効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한 組織의 核心으로서 調整局 (Coordinating Bureau)을 設置하기로 決定하여 이의 構成 및 委任事項에 관한 決議를 採択한바 있는데 同決議 第2項은 同調整局을 25個國의 代表로 構成하되 地域別 配定은 아프리카洲 12個國, 亞細亞洲 8個國, 南美洲 4個國, 歐洲 1個國으로 할 것을 定한바 있었다. 그後 이 調整局의 第1次會議가 外相水準에서 1977年 4月 7日부터 11日까지 5日間 印度首都

「뉴델리」에서 開催되었는데 이 會議에는 다음과 같은 25 個의 調整局構成국이 參席하였다.

알제리아, 앙고라, 벤그라데쉬, 보츠와나, 차드, 쿠니, 가이아나, 印度 印尼, 이라크, 자마이카, 리베리아, 니젤,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解放 機構, 페루, 스리랑카, 수안, 시리아, 탄자니아, 越南社会主义共和国 유고슬라비아, 자이레, 잠비아

調整局構成국이 아닌 다음의 諸會員國 代表國도 調整局의 構成 및 委任事項에 관한 第5次頂上會談時의 決議 第7項規定에 依拠 하여 會議에 參席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알젠티나, 부우탄, 카메룬, 사이프러스, 에치오피아, 가이아나, 요르단, 케냐, 北韓, 쿠웨이트, 라오스人民民主主義共和国, 말레이 지아, 모리세스, 모록코, 네팔, 오만, 과탈, 세네갈, 社会主义人民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 소마리아, 트리니닷드 및 토바고, 튀니샤, 우간다, 聯合아랍太守國, 예멘人民民主主義共和国 (以上 26 個國)

아프리카 民族會議 (南아프리카의 解放運動團體)도 參席

同會議終了後 發表된 最終聲明書 (Final Communique) 序說部分 에 의하면 同會議의 經過는 大略 다음과 같다.

『開會會期에 「모랄지 데사이」印度首相이 致辭를 하였다. 그는 印度가 非同盟을 公約하고 있음을 再確認하면서 非同盟主義가 世界政治에 있어 恐怖로 부터의 自由를 發生시켰다고 말하였다. 그는 一部 國家群의 妨害에도 不拘하고 多年間에 걸쳐 非同盟運動은 成長해 왔으며 그리하여 現時點에 있어 이것이 世界大多數

國家의 支持를 獲得하고 있으니 非同盟運動은 國際生活의 主流를 이루게 되었다고 認定하였다. 그는 또한 「코롬보」에서의 第5次 頂上會談에 作成된 活動計劃을 同運動의 進化過程에 있어서의 主要한 哩程標라고 陳述하고 이의 早期達成을 위해 努力할 것을 促求하였다. 그리고 非同盟諸國이 當面하는 挑戰은 그들 사이에 意義 있는 形態의 協調, 協同을 이룩함으로써 欠乏에 대한 鬭爭을 展開해 나가는 일이라고 하였다.

調整局은 第5次 非同盟國頂上會談以後의 政治, 經濟狀況을 評價하고 同頂上會談에 採択된 政治宣言과 經濟宣言 그리고 經濟協力을 위한 活動計劃에 收錄되고 있는 諸決定을 遂行해나갈 積極措置를 取할 必要가 있음을 強調하였다. 또한 調整局은 非同盟諸國의 役割과 影響力이 더 늘어남과 아울러 特히 國際聯合안에서 國際問題에 관한 그들의 立場이 보다 큰 支持를 받고 있음에 注目하였다.

調整局은 또한 第5次頂上會談以來 國際關係面에서 어떤 積極的 趨勢가 繼續되어 오고 있음에 注目하였는데 그中 特히 눈에 띄는 것은 解放을 위한 鬭爭과 帝國主義 植民主義, 新植民主義, 人權主義, 猶太民族主義 및 그밖의 모든 形態의 外國支配 및 榨取의 行爲의 發顯에 反對하는 鬭爭이 加一層 強化되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國際的 政治, 經濟關係를 積極적으로 變化시키려고 努力하는 國家의 數가 늘고 있을 뿐만아니라 그 努力度가 強大化되어 가고 있다. 그러는 또한편에 있어 많은 危機狀況이 解決되지 않은채 남아 있거나 甚至於는 더 惡化되어 왔고 若干의 새로운 緊張狀態와 權力抗爭이 造成되거나 새 地域으로 擴張되어 나갔다.

調整局은 非同盟諸國이 第5次頂上會談때 取해진 諸決定事項을 遂行하는데 있어 特히 國際聯合 第31次總會會期때 國際的 關心事가 되는 몇몇 重要한 事項에 關해 決議案을 採択 하도록 發議하고 이를 確保하는데 重要한 成果를 건우었음에 注目하였다. 調整局은 그의 獨立, 主權 및 領土保全이 威脅당 하고 있는 非同盟諸國을 支 援하고 이들과의 連帶를 強化하는데 關한 몇몇 宣言을 發表하였다.

非同盟諸國은 그들과 그밖의 開發途上諸國과의 사이의 經濟協調의 分野에서 諸決定과 諸計劃의 着實한 遂行을 促進시키는데 能動的 이었다. 情報와 大量媒體分野에서의 協調의 增大는 非同盟諸國에 關한 報道內容과 見解를 自主的으로 正確하게 그리고 客觀的으로 傳播하는데 寄與하였다. 非同盟諸國은 國際問題에 있어서의 그들의 役割을 局限시키고 그들의 連帶와 團結을 弱화 시키는 外部勢力의 努力에 成功的으로 抵抗하였다. 調整局은 國際聯合안에서의 非同盟 諸國의 活動을 效果的으로 調整할 수 있었다.

調整局은 非同盟運動의 會員國數가 增加하고 있는 主因은 非同盟 政策이 그들의 自由를 鞏固히 하고 真正으로 自主的인 外交政策을 追求할 수 있는 確固한 基盤을 提供해 준다는 認識이 널리 퍼지 고 있다는데 있다고 認定하였다. 非同盟政策은 平和와 安全에 대 한 人類의 圧倒的 多數의 眞實하고 誠實한 憧憬의 表現이자 國際 社會全體와 보다 特定하게는 全世界 開發途上諸國의 利益을 위하여 公正하고 適切한 經濟, 政治 및 社會秩序를 確保하려는 그들의

決意의 表現인 것이다. 그러나 非同盟의 役割과 影響力이 增大한 結果는 非同盟運動에 參與하는 모든 國家에게 非同盟運動의 統合性 主體性 및 積極的 推進力을 가장 嚴格히 維持하고 同運動의 諸原則과 政治哲學과 諸政策을 變함없이 固守해 나가야 할 義務가 賦課 되었다.

調整局은 비록 手段의 強度는 弱化되었지만 非同盟主義의 適切性과 正當性이 오히려 더 높아졌음을 認知하였다. 非同盟運動은 그것이 한결 같은 重要性을 가진 積極的 힘으로서 國際問題의 平和的 解決과 衡平 및 正義에 立脚한 世界의 經濟 社會秩序 形成에 貢獻하고 있다고 主張해 왔다. 調整局은 또한 非同盟運動이 이새 秩序의 本質的 諸要素를 뚜렷이 드러내고 이들의 重要性和 緊急性을 強調하고 國際共同社會가 이들을 受諾하도록 能動的으로 作用하는데 指導的이고 獨自的인 役割을 繼續 遂行해 오고 있음을 認定하였다. 事實 해가 갈수록 더욱 普遍的으로 相互依存關係에 들어 서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이와 같이 重要한 役割을 遂行해 나갈수 있는 國家集團은 따로히 想像하기 어렵다.

Ⅲ. 第三世界와 新國際經濟秩序

1. 戰後 開發途上諸國의 動向

第三世界나 開發途上諸國의 觀點에서 國際經濟體制의 數 많은 缺點을 克服하기 爲해 國際協調의 바탕을 마련해 왔던 「라울 프레빗쉬」(Rául Prebisch)가 議長役割을 하는 가운데 1964년에 「유엔 通商 開發會議」(UNCTAD)가 그 第一次會議을 제네바에서 開催하였다. 이 보다 3年後인 1966년에는 「알제리아」에서 開催된 會議의 結果 77個 國家群이 形成되고 世界經濟問題에 관한 共同立場을 闡명한 「알지에憲章」이 採択되었다.

1968년에는 第二次 유엔 通商 開發會議가 「뉴·델리」에서 開催되었는데 여기에 參席한 第三世界 代表들은 西方諸國의 國際通商 및 國際金融의 分野에서의 重要한 改革을 容認하지 않은 데 비해 不滿을 表示하였다. 그後 1971年 11月 77個 國家群이 採択한 「리마宣言」(Declaration of Lima)은 1972年 3月 「산차고」에서 開催된 第三次 유엔 通商 開發會議때(參加國은 96個國으로 增加) 「살바도르·아렌데」(Salvador Allende)의 激烈한 演說을 한 基調를 提供해 주었다.

戰後의 國際經濟體制에는 여러가지 缺陷이 있으나 開發途上諸國의 立場에서 重要視되는 것은 「天然資源」의 問題이며 이것은 第三世界에서의 民族主義의 集團化趨勢에 뒷받침 되어

資源民族主義의 形態를 取하면서 猛威를 떨쳐 오고 있다. 이 天然資源을 둘러싼 危機는 其實에 있어 枯渴을 意味하는 物理的 危機라기 보다는 多分히 從來의 資源供給體制의 變更問題를 둘러싼 政治的 戰略的 危機라는 樣相을 띠우고 있다. 즉 植民地時代에 開發途上地域을 掌握하고 있던 國際的 巨大企業이 戰後 獨立을 達成한 後에도 그 生産 流通機構를 左右하고 있으므로 新生開發途上諸國이 自國資源을 自由로히 処分할 수 없는데서 問題가 發生하였던 것이다.

國際的 大企業體, 즉 多國籍企業體(Multinational corporation)는 그 太宗國의 利益을 基準으로 鉉區管理, 採掘統制 및 價格決定을 하게 되므로 그것은 資源保有國이 天然資源을 利用한 工業化를 통해서 經濟發展을 이룩하려는 要求와 衝突하게 된다. 卑近한 例로 「이란」과 「이락」은 自國의 工業化를 促進하기 위해 產油量의 增加로 未開發油田의 開發을 要請하였으나 多國籍企業體側은 이를 拒絕하였다. 이點 銅의 增産을 要求하였던 「칠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가하면 「알제리아」·「리비아」·「베네켈라」·「쿠웨이트」등에서는 國際資本에 의한 最低費用의 亂掘이 油田의 枯渴을 急速히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開發途上諸國은 自國의 손에 의한 資源開發과 그 自由處分을 可能케 하기 위해 이른바 資源民族主義를 追求하게 되었다. 이러한 資源民族主義는 60年代를 통해서 의 南北間 經濟隔差의 擴大와 開發途上諸國의 經濟事情 惡化를

背景으로 하여 60年代末부터 한層 더 高潮됨에 이르렀다.

그런데 開發途上諸國이 資源民族主義를 追求함에 있어서는 自然히 処置가 비슷한 나라들의 結束이 必要하게 되어 일찍이 1960년에 OPEC (石油輸出國機構)가 그리고 1967년에는 CLPEC (產銅輸出國會議)가 結成되었다. OPEC는 價格引上과 經營參加에 적지 않은 成果를 올려오던 中 1973年の 第4次 中東戰爭 때에는 OPEC에 大挙 加入하고 있는 「아랍」 產油國들의 機構인 OAPEC (아랍石油輸出國機構)가 石油供給 削減을 断行하였고 OPEC는 이를 契機로 石油價格體系의 根本的 變更과 經營參加의 飛躍的 進展을 꾀하는데 成功하였다. 이제 產油國들은 OPEC를 통해 自國의 石油資源에 대한 主權을 回復하고 自國資源을 國民經濟의 發展을 위해 使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OPEC方式」은 開發途上國사이에 서 높이 評價되어 73年 「알지에」에서 열린 非同盟國頂上會議때 採択된 經濟宣言은 OPEC 및 CLPEC와 같은 1次產品 生産國의 利益擁護를 위해 機構를 創設할 것을 勸告하였다. 이 趣旨는 73年の 第28次 유엔總會때 採択된 「天然資源에 대한 恒久主權」 決議에도 담겨졌고 또한 74年 4月 資源問題를 討議하기 위하여 召集된 第6次 유엔特別總會에서도 그러한 機構創設이 거듭 勸告되었다. 이 特別總會때 「알제리아」의 「후아리·부메디엔」 (Houari Boumediene) 大統領은 北部의 工業先進國에 대한 經濟的 總攻勢를 開始하는 旗手役割을

하였는데 總회에서 行한 演說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力說하였다.

「OPEC가 取한 行動은 우리들 開發途上諸國에게 있어 原料價格이 重要하다는 것, 產油國들이 價格統制의 지렛대를 操用할 必要가 絶對로 있다는 것, 그리고 原料生産諸國이 聯合體를 構成할 可能性이 크다는 것을 처음으로 그리고 가장 具體적이고 劇的인 方式으로 例証한 것이다…… 이러한 行動을 開發途上諸國은 하나의 模範的 實例이자 希望의 根源인 것으로 바라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부메디엔」 大統領의 先導的 提議에 따라 第6次유엔 特別總회는 「新國際經濟秩序의 形成에 관한 行動計劃」을 採択하였다. 이어 1975年 1월에 유엔總회는 「멕시코」의 「에체베리아」(Echeverria) 大統領이 提出한 「國家間的 經濟的 權利, 義務憲章」(The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를 可決하였는데 同憲章 第2條는 다음과 같이 宣言하고 있다.

「모든 國家는 自國의 모든 富, 天然資源 및 經濟活動에 대하여 所有, 使用 및 処分權을 包含한 完全한 恒久的主權을 갖고 이를 自由로히 行使한다」 이는 民族主權을 基軸으로 하여 世界의 調和的 發展을 꾀하려는 方向을 提示하고 있는 것이 特色인데 이러한 權利, 義務안에는 「國有化代措置를 取하는 나라의 國內法에 따라 處理될 補償의 問題를 隨伴하여 外國財産을 國有化 하거나 沒收하거나 그 所有權을 移轉하는 것」이 包含된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第5條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모든 國家는 그 國民經濟를 發展시키기 위하여 一次產品·製造業者들의 組織體에 加入할 權利를 갖는다..... 또한 모든 國家는 이를 制約하게 될 經濟的 政治的 措置를 適用하는 것을 自制함으로써 그와 같은 權利를 尊重할 義務를 지닌다.

이와같이 하여 1975年까 지에 開發途上諸國은 非同盟諸國會議나 UNCTAD 를 통한 第三世界の 積極的 支援을 받으면서 다음 두가지 主要한 方法으로 經濟的 攻勢를 取하게 되었다. 즉 그 하나는 多國籍企業體에 대하여 關係主權國家의 意思에 따라 運營하라고 警告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카르텔」(企業聯合)의 行動에 따라 一次商品의 價格을 統制하겠다고 威脅하는 것이다.

2. 資源民族主義와 多國籍企業的 國際主義의 對決

이 時點에 있어 廣範한 政治的 意見을 代表하는 北方先進工業國家圈의 「음씨버」들은 「新國際經濟秩序」(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를 要求하는 南方開發途上國家圈의 움직임을 가장 深刻하게 받아 들였다. 政治的 左派에 屬하는 많은 批評家들은 西方世界の 産業體制에 諸般原料가 廉價로 그리고 確實하게 供給된다는 것은 主要한 일이며 重要한 一次產品의 企業聯合으로 多國籍企業體의 解消가 始作되기를 希望한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이러한 眺望에 선다면 經濟力의 中心이 南方圈으로 移動하는 結果는 南方圈諸國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게 되는 反面 先進國에서 物價가

昂騰하는 結果는 이 地域諸國內에 階級戰爭이 일어날 可能性이 생긴 것으로 보게 된다. 事實 1975年 2月 「다카」 (Dakar)에서 110 個國의 參加한 가운데 開催된 資源會議에서 레오폴드·센골「Leopold Senghor」은 「第三世界에 屬하는 우리들은 世界貿易의 傳統的 類型을 破壞하는데 우리의 天然資源을 活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宣言하였다. 이에 鼓舞되어 「지오프레·바라크로우」 (Geoffrey Barraclough) 같은 左翼評論家は 「오늘날 新資本主義의 흔들거리는 構造를 낭떠러지로 몰아 넣으려 威脅하고 있는 것은 새 世界秩序의 形成을 要求하고 있는 石油輸出國機構와 第三世界間的 同盟이다」라고 論評하였다.

또 한편에 있어 이러한 事態發展에 反作用을 하는 勢力은 이러한 挑戰의 重心이 左翼便에 있음을 認定하면서도 이에 對抗하기 위해 全力을 動員하였다. 當時의 키신저美國務長官은 初期段階에 있어 強硬政策을 取하여 一次產品 製造業者들의 「不當한 價格請求」와 「喝取行爲」에 대해 報復措置를 取할 것이라고 暗鬱하게 警告한 바 있었다. 또한 「다니엘·P·모이니한」 (Daniel P. Moynihan) 前美國유엔大使도 「世界經濟는 第三世界가 提議하고 있는 諸措置를 正當化시키기에 充分할 만큼 惡한 狀態는 아니다. 그러나 第三世界가 이미 取한 諸般措置의 結果 이 措置를 取하지 않았을 경우 보다 훨씬 惡化되었다」고 論評하였다. 다시말해서 西方政治家들이 神經衰弱症狀을 克服하고 美國이 構想한 戰後의 國際體制 構造를 回復하기 위해 逆攻勢를 取할 것을 要求하였던 것이다.

실제에 있어 미국은 1972年以来 새 「에너지」源의 開發과 世界食糧의 独占供給을 통해 美國의 世界的 「헤게모니」를 再現하려고 試圖하였다. 이러한 戰略은 政治面에서는 새 大西洋憲章 아래 工業國과 消費國을 再結合시키고 이를 背景으로 하여 多國籍企業體의 世界進出을 뒷 받침하는 體制를 構築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資源戰略은 이미 뚜렷한 效果를 건우었으나 또한面에 있어 新西大洋 憲章에 따르는 自由主義的 國際 經濟秩序再建構想은 아직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다. 從來 資本主義 아래 工業先進國을 이룬 西方側을 第一世界, 社會主義乃至 共產主義 아래 經濟成長을 促進해온 共產 圈을 第二世界 그리고 그밖의 開發途上諸國을 第三世界라고 불려 왔다. 그러던 것이 70年代에 들어서 부터 中共은 美, 蘇兩超大國을 第一世界 中共을 包含한 開發途上諸國을 第三世界 그리고 그 사이에 낀 歐洲共同體(EC)와 日本등 先進工業國을 第二世界라고 부르고 있는데 第三世界는 近者에 이르러 資源을 가진 富國群(第三世界)과 資源을 갖지 못한 貧國群으로 分立되는 徵兆를 보이게 되었다. 앞으로 大勢는 美國이 推進하는 多國籍企業的 國際主義와 第三世界の 資源民族主義乃至는 經濟的 民族主義가 다투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다 細部的인 樣相으로는 美國이 中共式 区分에 따르는 第二世界를 自國傘下에 다시 넣으면서 第四世界도 끌어 들여 第三世界の 經濟的 民族主義를 弱화시키고 이를 多國籍 企業的 國際主義에 接續시키려 할 것으로 豫想된다.

그러나 第三世界는 繼續 經濟的 民族主義를 追求하여 第四世界와 더불어 行動하면서 美國과 同調하는 經濟圈과 對立하고 資源獲得의 必要에서 接近해 오는 第二世界를 그들의 原理에 協力하는 限 끌어 들이려 努力하게 될 것으로 豫想된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第三의 意見, 第三의 길이 있으니 이것은 上記한 두가지 立場과 마찬가지로 여태 까지의 事態發展에 대해 危機意識을 느끼는 點은 같으면서도 兩者間的 妥協的 改革案이 제대로 機能할 것이라고 보다 樂觀的인 立場을 取하고 있다. 여기에 關聯된 諸般問題의 緊急性을 認定하고 「開發過程上的 同僚國」(Partners in Development)이라는 主題下에 1969년에 發表된 後 널리 읽혀져 온 「페아슨委員會」(Pearson Commission)의 研究報告書의 內容에 第一먼저 同調한 機關들 中の 하나가 世界銀行이었다. 이 研究報告書의 主題가 示唆하는 바와 같이 「페아슨委員會」은 産業世界의 基本利益을 犧牲시키는 일 없이 開發途上諸國의 正當한 要求를 考慮에 넣는 方向으로 國際通商·國際金融 및 國際投資를 改革할 것을 要求하였던 것이다. 그밖에 로마俱樂部, 三邊委員會(Trilateral Commission) 및 海外開發理事會(Overseas Development Council)도 相互調整의 必要와 可能性을 力說하였다. 海外開發理事會가 75년에 發刊한 「依存의 彼岸: 開發途上世界는 說破한다」라는 冊가운데서 「알리·A·마즈루이」(Ali A.Mazrui) 같은 專問家는 오늘의 世界가 「보다 均衡잡힌 相互加害能力과 새로운 平等主義的 道德과 結付된데서 나타나는 均整된 關係를 意味하고 「成熟된 相互依存」(Mature interdependence)을 特色으로

하는 새 時代의 門턱에 이르고 있다고 表現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버트·W·덕키」(Robert W. Tucker)와 같은 美國의 學者도 이와 같은 潮流를 「收益의 國際的 再分配를 隨伴할지 모르는 「새로운 平等主義」라고 불렀다. 이에 비추어 볼때 많은 觀測者들은 二次大戰後에 始作되었던 非植民化 過程이 70年代初期의 諸般事件으로 完結되고 이제부터는 經濟가 政治的 主權을 補完할 段階에 들어섰다고 느끼게 된것 같다. 또한 北方圈의 工業先進國家들도 새 國際經濟秩序를 形成하자는 南方의 開發途上諸國의 要求를 받아 들여 주는 것이 南方圈과의 關係에 있어 北方圈諸國에게 새로운 지렛대 作用의 手段을 許與해 주고 또한 第三世界와 關聯하여 北方圈의 政策과 利益을 調整할 機會를 提供해 준다는 點에서 北方圈에게도 有益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 물론 產油國들의 成功的인 原油需引上에 힘입은 資源保有國들은 既存 資源 카르텔의 強化에 注力하는 한편 國際적으로도 그들의 主張을 貫徹하기 위하여 유엔經濟特別總會나 資源總會등을 開催함으로써 集團的인 壓力을 誇示하였다. 資源波動을 契機로 後進國開發에 관한 國際會議에서의 主導權은 從來의 先進國으로 부터 第三世界로 移讓된 感을 주었으며 한때 잠잠했던 南北問題는 國際經濟上 가장 深刻한 議題의 하나로 再登場하게 되었다.

3. 相互依存의 解決策의 模索

原油波動直後 當時의 「키신저」 美國務長官이 產油國에게 壓力

을 加하기 위한 하나의 手段으로서 石油消費國會議을 提案하였는데
어에 대해 仏蘭西의 「지스카르」大統領은 OPEC 와 工業先進國間的
對峙를 憂慮하여 國際經濟圈을 代表한다고 할 수 있는 27個國(産
油國, 先進國, 및 非産油開發途上國間의 協商을 提議하였다. 그리하여
75年 2月과 10월에 準備會議을 가진後 75年 12월에 1次會議가
召集되어 一年間을 協商期間으로 設定하였으나 重要先進國의 景氣回
復勢가 鈍化되었고 또한 美國에 「카터」新行政府가 登場하여 새로
운 政策樹立에 時間이 必要하였던 關係로 準備期間이 延長되어 今
77年 5月末에 이르러서야 國際經濟協力會(파리 南北會議)가 開催
되었다. 南北間 利害의 對立으로 同協商이 踏步狀態를 免치 못하였
다가 急速히 進轉을 보게 된 重要要因中の 하나는 이러한 種類의
協商에서 保守的 立場을 取해온 美國의 劇的 方向轉換이었다. 4
月末 유엔總會에서의 演說을 통하여 「카터」大統領은 共同基金의
設置를 包含하는 一次産品 國際時勢의 安定을 위한 協商에 美國이
積極的으로 參與할 用意가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 開發途上諸國도
國際經濟 政策의 決定에 있어 正當한 權利를 行使할 수 있어야 한
다고 主張하였다. 그後 國務省經濟擔當次官補 「쿠퍼」(R.Cooper)
는 最貧國에 대한 外債償還猶豫나 國際인플레이率에 대한 一次産品價
格의 指數化(Indexation)까지도 解決되어야 한다는 果敢한 立場을
取하였다. 한편 國際經濟協力會議 準備期間中인 76年 2月에는 關
係國實務者級으로 構成된 「에너지」 一次産品·開發·金融의 四個委
員會가 發足하여 準備作業을 進行시켜 왔는데 南北問題解決을 위해서

一次產品 國際市場價格을 安定化시키는 일과 外債을 輕減시키고 開發財源을 調達하는 일이 重點的으로 推進되어 왔다.

그중 一次產品 國際市場價格 安定化問題에 關해서는 開發途上諸國이 小麥, 雪糖, 朱錫, 커피, 코코아 등 數個의 原資材에 關한 既存의 國際協定의 對象을 擴大시킴과 아울러 이들의 國際市場價格을 安定化시키고 先進國에의 市場擴大로 輸出所得을 增大시키려 해 왔다.

76年2月 「마닐라」에서 開催된 「77그룹會議」에서는 鐵鉍石·커피 등 主要 一次產品 18個品目の 價格을 安定 시키기 위해 緩衝在庫(Buffer stocks)를 마련하려는 計劃을 세운바 있는데 이에 대해 先進國側은 同計劃이 實踐에 옮겨질 경우 自由市場 原則이 蹂躪되고 「인플레」를 誘發할 憂慮가 있다고 하여 消極的인 反應을 보였다. 이어 76年5月 「나이로비」에서 開催되었던 第四次 UNCTAD에서도 一次產品 緩衝在庫協定의 締結, 工產品價格이나 換率의 變動들을 充分히 考慮한 價格調整機構의 設置, 開發途上國輸出의 安定을 위한 補償金融制의 改善 및 擴大, 國際的인 適正需給體제의 確立등에 會意하였다.

다음으로 外債輕減과 開發財源의 調達問題에 關해서 보면 IMF나 世界銀行그룹(World Bank's Group)의 制限된 財源以外에 石油波動以後 非産油開發途上國들의 國際收支赤字에 對한 支援을 主目的으로 IMF內에 特別基金이 設置되었다. 그러나 借入需要에 比하면 極히 小規模일 뿐만 아니라 그 條件이나 金利 亦是 不利하다. 이에 76年末 IMF의 專務理事인 「위트veen」(J.Witteveen)

의 構想에 따라 77年3月 重要國의 非公式的 合意로 160億弗規模까지 擴大되었다. 產油 三國(사우디·쿠웨이트 및 아랍土侯國聯合)과 先進五國(美國, 西獨, 日本, 瑞西 및 和蘭)이 双務協定에 의하여 50%씩 出資하되 IMF와는 別途의 獨立基金을 設置하여 外債壓力을 가장 甚하게 받는 開發途上 最貧國을 有利한 條件으로 優先 支援한다는 것이 그 重要인데 사우디를 비롯한 產油國側의 消極的인 態度로 큰 進展을 보지 못해 왔다.

新國際經濟秩序(NIEO) 確立에 대한 開發途上諸國의 主張은 74年4月の 유엔資源特別總會에서 採択된 「新國際經濟秩序宣言」 및 「同行動計劃」의 뒤를 이어 76年2月の 「77 그룹會議」에서의 「마닐라宣言」에 要約되고 있는데 그 主要事項들은 다음과 같다.

- ① 資源에 대한 恒久主權의 確立 乃至는 國有化의 確認
- ② 經濟援助의 增大
- ③ 國際商品協定の 締結
- ④ 一次產品價格의 工業製品價格에 대한 指數化
- ⑤ 特惠貿易의 擴大
- ⑥ 開發途上國 累積債務의 輕減
- ⑦ 技術移轉의 促進
- ⑧ 生産國 카르텔의 結成
- ⑨ 多國籍企業의 規制

이윽고 그間 一年半에 걸친 南北問題討議를 總決算하기 위한 國際經濟協力會議 閣僚會議(파리南北會議)는 北側先進國代表 8個國과 南側開發途上國代表 19個國 都合 27個國의 閣僚들이 參席한 가운데 77年5月30일부터 6月2일까지 4日間 開催되었다. 同會議終了後 共同聲明代身에 合意事項과 未合意事項이 併記된 共同議長報告가 發表되었는데 開發途上國側은 國際經濟秩序의 構造改革에

관한 그들의 提案中の 大部分이 合意되지 못한 點에 대해 그리고 先進國側은 「에너지」 討議에 관하여 合意가 이루어지지 못한 點에 대해 各各 遺憾의 뜻을 表하였다. 同報告는 現時點에서 先進國과 開發途上國 사이에서 可能한 妥協의 限界點을 보여 줌과 同時에 南北對立의 深刻性을 露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同會議에서 合意된 事項은 20個項目에 걸쳐 있는데 이中에서 重要한 成果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一次產品의 價格을 安定시키고 同生産國의 輸出所得을 增大시키기 위한 共同基金을 設置하는데 合意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은 同基金의 目的과 性格에 관해서 見解를 若干 달리 하고 있다. 즉 先進國側은 同基金의 創設을 檢討하기에 앞서 開發產品別로 協定을 맺을 것을 主張하고 있는데 反하여 開發途上國側은 同基金의 規模를 60億弗로 設定하여 一次產品綜合計劃을 推進하려 하고 있다. 이에 관한 具體的인 協商은 今77年 11月の UNCTAD 會議에 開始될 것이나 共同基金이 實際로 創設되기 까지에는 相當한 迂餘曲折이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둘째로 最貧國 經濟援助를 위해 10億弗 規模의 特別救濟計劃을 採択하였다는 것이다. 國別로 出資額을 보면 EC(9個國)가 3億8,500万弗, 美國이 3億7,500万弗, 日本이 1億1,400万弗, 그밖에 「캐나다」 瑞典, 瑞西, 濠洲, 西班牙 등이 殘餘額을 擔當한다.

셋째로 開發途上國家에 대한 先進國의 援助를 質的, 量的으로 擴大, 改善한다. 즉 先進諸國은 數年間에 걸친 長期援助計劃을

樹立하고 最少限 GNP의 1%에 達할때 까지 漸進的으로 增加시키고 또 國內經濟計劃에 이를 包含시켜야 한다.

한편 合義를 보지 못한 事項으로서 「에너지」價格·輸出所得補償·累積債務處理 問題들인데 이中에서 先進國들은 開發途上國이 主張하고 있는 累積外債의 無効化 乃至는 輕減에 대해 否定的인 反應을 보이고 이에 관한 臨時措置로서 上述한 바 10億弗 規模의 特別救濟資金을 最貧國에 供与하기로 決定함으로써 開發途上國의 要求를 一時的으로나마 撫摩하였다.

4. 將來展望

總體的으로 볼때 南北問題 또는 新國際經濟秩序 樹立의 課題는 70年代前半까지의 「告發의 時期」에서 75年을 分岐點으로 하는 「對話의 時期」를 거쳐 「實踐의 時期」 또는 「結實의 時期」로 접어들어갈 첫발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다. 파리南北會議에서 아직 解決을 보지 못한 問題들은 앞으로 유엔등 既存 國際機構의 테두리 안에서 協商을 거쳐 最終的으로 妥結되어야 하겠고 個中에는 極限的 對決이 豫想되는 部面도 없지 않으므로 現時點에서 앞날의 新國際經濟秩序의 全樣相을 鮮明하게 가려내기는 어려우나 過去의 IME-GATT體制와 比較할때 몇가지 重要한 原則上의 變化가 進行되고 있는 것만은 事實이다. 그 하나는 一次產品의 國際時勢를 工產品의 경우와 같이 單純히 市場機構(Price mechanism)에만 放置할 수는 없으니 어떠한 形態이건 資源生産國의 輸出所得의 相對

的 下落을 補償할 수 있는 機構을 設置해야 한다는데 總體的인
合意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所得의 再分配를 위하여 一種의 國際
的인 衡平의 原則이 受諾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資源의 供給源으로서 그리고 先進國의 輸出市場으로서의 開發途上
國의 國際經濟的 役割이 다시금 確認되었고 이러한 相互依存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國際經濟의 均衡있는 成長을 破壞 나가자는 것이
다. 따라서 現 國際景氣가 持續되는 限 先進國이나 產油國과 같
은 富國들이 所謂 第四世界로 定義되는 最貧國들에 대한 援助가
擴大될 것으로 豫想된다.

以上을 要約컨데 世界經濟의 構造的 變革은 先進諸國이 主導하는
既存의 自由主義原理에 立脚한 國際經濟秩序의 改革과 第三世界가
主導하는 正義와 衡平의 源理에 基礎를 둔 國際經濟秩序의 革新
이 相衝하는 過程에서 定立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 原理를 連結시키는 사슬은 和蘭의 「틴버겐」(Tinbergen)
教授가 指摘한 「連帶性」(Solidarity)의 原理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世界를 「綜合的인 全體」로서 把握하여 一國의 國
家利益에만 執着하지 말고 國際的 共同利益과도 調和시키는 相互
依存, 國際協調의 態度가 切實히 要求되고 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個人的 自由와 權利의 確立이 國內民主主義의 前提가 되듯이 民族國家의 權利와 義務의 確立이 政治面에서나 經濟面에서나 國際民主主義의 前提가 된다는 點을 아울러 銘心해야 한다. 國際經濟와 直接, 間接으로 關聯되는 人口, 食糧, 새 「에너지」源, 公害, 海底開發, 宇宙開發, 海洋法, 宇宙法, 技術移轉 등 고박의 새로운 次元의 여러 問題들이 先進國, 開發途上國(南北問題) 또는 自由世界, 共產圈, 第三世界(東西問題)의 區別없이 全人類가 全世界的 規模에서 共同的 知慧와 資源과 努力으로 解決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新時代에 우리는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IV. 第三世界와 南北韓關係

1. 南北韓의 第三世界에 對한 外交競合

우리나라는 安保·統一外交와의 機能的 關聯下에 60年代以後 對非同盟圈外交 즉對中立国外交를 積極的으로 展開해 왔는데 이는 北傀도 같은 地域에 浸透하여 反美·反韓을 策動해 왔기 때문에 南北韓間에 熾烈한 外交競合을 誘發해 온 것이 特徵이며 70年代에 들어 韓半島問題가 國際的으로 浮刻된 後로 이러한 外交競合 樣相은 더 激化되고 있다.

70年代에 들어와 緊張緩和, 平和共存의 氣流속에 世界秩序再編成의 氣運이 高潮되고 亞細亞太平洋地域에서도 美·蘇·中共·日의 四強이 關係를 調整하는 가운데 새로운 循環的 勢力均衡體制를 摸索하게 되자 우리나라는 이러한 激動하는 國際情勢에 能動的으로 適應하면서 平和統一을 向해 南北關係를 調整하는데 先導的 役割을 해나갔다. 朴正熙大統領이 70年光復節때 發表한 「平和統一基本構想에 관한 8·15宣言」, 72年の 「七·四南北共同聲明」, 73年の 「6·23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 74年1月18日의 「南北韓不可侵協定提議」, 74年光復節때 發表한 「統韓三大原則」등으로 大韓民國의 平和統一에의 綜合的 構想은 明確히 밝혀졌다. 이를 要約컨데 우리나라의 立場은 次元높은 民族愛와 平和精神에서 南北韓이 從來의 冷戰的 對決에서 脫皮하고 善意의 競爭과 共存의 段階를 거쳐

平和的으로 統一을 達成하자는 것으로서 段階的, 機能的 統合을 重要視하여 戰爭抑止와 平和定着(南北韓不可侵協定の 締結), 平和共存의 制度化(國際的 保障과 南北韓의 유엔同時加入) → 相互交流(經濟·社會·文化面) → 人口比例의 自由總選舉를 통한 政治的 統一의 完成이라는 構圖를 提示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具現하기 위하여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라는 두 通路를 통해 南北對話를 進行시켜 왔고 71年の 第26次 유엔總會와 72年の 第27次 유엔總會에서는 南北對話를 통해 韓國問題를 韓國人끼리 自主的, 平和的으로 解決하는 機會를 갖게 하자는 意味에서 우리나라가 不上程戰略을 取하였고 이에 따라 韓國問題討議延期案이 可決되었다.

한편 北傀는 南北對話開始後에도 如前히 共產化統一이라는 窮極目標을 堅持한 가운데 平和統一戰略과 武力統一戰略을 併進시키는 二重態勢를 取하여 한쪽으로는 即刻的·包括的 統一接近을 強調하여 軍事的 對峙狀態의 解消와 全外軍의 撤収(平和協定の 締結) → 多方面的 合作과 交流 → 大民族會議 召集, 南北韓聯邦制實施, 單一國號下的 유엔加入을 主張하면서 또한쪽으로는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 또는 四大軍事路線에 따라 對南武力挑發과 對南顛覆工作을 強化해 왔다. 특히 大韓民國이 對內的으로 維新體制下에 國力을 培養하고 對外的으로 6.23宣言에 따라 非同盟圈 및 東歐圈에 까지 外交基盤을 擴大 強化해 나가는 것을 보자 그의 教條主義的 戰鬪性을 다시 浮刻시켜 73年8월에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시키고 對南挑發을 加一層 激化시킴과 아울러 73年の 第28次 유엔總會以後 韓國問題 討議에 있어 猛烈한 攻勢를 取해 왔다. 이에 따라 世界到處에서

南北韓間에 外交對決이 深化되어 왔는데 이러한 激甚한 外交對決舞
臺가운데서도 特히 重要的 戰略地帶로 浮刻되어 온 것이 非同盟中
立圈 乃至 第三世界이다.

2. 北傀의 策動과 第三世界の 反應

먼저 北傀의 非同盟圈浸透 및 유엔總會에서의 策動狀況서 부터
살펴 본다. 北傀對外政策의 基本方向은 첫째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團結을 守護하여 共產國家들과의 既存紐帶關係를 더욱 強化하고 들
째 平和共存의 旗幟아래 非共產圈 및 非同盟中立圈諸國에도 積極
進出하여 經濟的·政治的 交流의 幅을 넓히고 세계 反帝國主義鬭爭
· 民族解放鬭爭을 積極 支援하고 네째 유엔을 비롯한 모든 國際機
構에 進出하여 南韓의 國際的 地位를 弱화시킴으로써 共產化統一을
위한 外交的 背景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要約된다.

이러한 脈絡아래 北傀의 유엔政策 乃至 統一政策은 70年의 第
25次 總會時까지는 유엔에서 「언커크」報告書를 中心으로 統韓論
議를 牽制하고 南北韓支持勢力을 平衡化하여 「두개의 韓國」觀을
全世界에 扶植하면서 韓半島안에서는 統一戰線戰略에 따라 對南攻勢
를 取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70年代에 들어 南北對話가
始作된 後로는 偽裝平和攻勢를 強行하여 첫째로 共產諸國 및 亞阿
非同盟諸國과의 團結을 強化하여 유엔에서의 票對決에서 勝利를 건
우고 둘째로 韓美關係를 惡化시켜 美國의 韓國問題介入 可能性을 最
大限으로 줄이는 가운데 韓國을 外部世界로 부터 孤立시켜 南北韓

問題를 民族内部問題로 轉化시키고 세계로 統一戰線戰術에 따라 南韓에 그들을 迎合할 수 있는 政權을 樹立한다는데 重点을 두어 왔다. 그리하여 具體적으로는 國際社會에 進出하여 韓國과 同等하거나 또는 韓國보다 優勢한 外交的 地位를 確保하려 들게 되었다. 여기에 있어서는 從來 北僞가 「集中外交」를 展開해온 非同盟國諸國 즉 中近東·아프리카·南美 및 東南亞의 中立主義諸國에 대한 外交的 浸透를 強化함과 同時에 從來 大韓民國 하고만 外交關係를 맺어온 自由世界諸國과 國際機構에 까지 進出해 왔다.

北僞는 일찍이 55年의 「반동」會議에 採択된 平和十個原則에 支持를 表明하여 非同盟中立圈에 秋波를 던지고 接近하기 始作하였으며 60年以後는 主로 中共에 便乘하여 非同盟中立諸國에 浸透해 들어갔는데 그 目的하는 바는 反帝·反植民 및 民族解放을 標榜하는 이들과의 連帶性을 強化하여 北僞의 國際的 地位를 向上시키고 國際社會에서 親韓勢力을 紛碎하여 大韓民國의 國際的 地位를 弱化시키면서 北僞가 提示한 統一方案에 대한 広範한 支持를 獲得하려는데 있어 왔다. 그리하여 그間 訪問外交·招請外交·軍事援助·經濟文化交流·民間接觸등 多様な 方式을 動員하여 紐帶強化에 努力해온 結果 非同盟圈과의 修交國數가 急增하였다. 72年부터는 每年 유엔總會에 對備하여 積極的인 巡訪外交를 展開해 왔는데 注目할 것은 이러한 活動이 南北韓 競合地域(總 46個국가운데 34個國)과 「아랍」共和國·印度·「유고」등 第三世界의 主導國에 集中되었다는 點이다.

参考로 71년까지만 해도 35個國에 지나지 않았던 北傀의 修交國總數가 그後 3年間に 急激히 늘어나 74年初 現在로 65個國 (美州 15, 亞州 13, 阿中東地域 33) 이 되어 거의 倍加되었다. 한편 같은 74年初의 大韓民國의 修交國總數는 94個國(美州 23, 歐洲 19, 亞州 19, 阿中東地域 33) 이었다. 또한 1976年末 現在의 南北韓修交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外交關係(韓國 96個國, 北傀 92個國, 競合國家 48個國). 地域別 常駐公館(亞州地域 : 韓國 28, 北傀 19, 對峙 10. 美州地域 : 韓國 30, 北傀 4, 對峙 3. 歐洲地域 : 韓國 21, 北傀 19, 對峙 8. 阿中東地域 : 韓國 24, 北傀 34, 對峙 13. 計 韓國 103, 北傀 76, 對峙 34)

(1) 알지에頂上會談 — 第28次, 第29次 유엔總會

北傀의 非同盟浸透工作의 結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73年9月 「알지에」에서 열렸던 第4次 非同盟國頂上會議에서 韓國問題에 관해서 討議하고 同年6月23日 北傀 金日成이 發表한 이른바 「五大綱領」을 그대로 反映하여 韓國의 再統一이 平和的으로 達成될 수 있도록 外國의 干涉이 中止될 것, 韓國에서 外國이 撤収할 것 「언커크」를 解体할 것, 韓國은 再統一後에나 또는 南北聯邦國家로 유엔에 加入할 것등을 要求하는 決議를 51個國의 贊成으로 採択하였고 나머지 23個國은 穩健派로서 票決에 參與하는 것을 保留하였다. 이會談後 「알제리아」등이 主動이 되어 30個國(그中 非同盟國이 過半數)이 共同으로 提出한 北傀支持의 第28次 유엔總會 決議案이 「南北韓 軍事對峙狀態를 除去하고 平和協定을 締結하고 多方面的 合作과 交流를 實施할 것」을 明記하

고 나온 것이 注目되었다.

第 28 次 유엔 총회는 韓國問題에 관한 票對決을 留保하고 南北對話의 繼續과 「언커크」의 解体에 관해서만 合意聲明을 發表하는 것으로 妥結을 보았으나 그後 北傀는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에 反對하는 分斷의 永続化責任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유엔의 힘을 逆利用하여 유엔軍과 美軍의 撤収를 促求하려 나섰다. 74 年에 들어 北傀는 許淡外相, 康良煜副主席, 金英柱副總理등 首腦層을 亞阿第三世界主要國에 親善使節로 派遣하여 그들의 支持를 呼訴하였고 그 結果 第 29 次 유엔 총회에서는 「알제리아」를 비롯한 共產圈 및 非同盟圈 32 個國이 北傀의 主張을 그대로 反映하여 駐韓 유엔軍司令部의 解体와 駐韓 全外軍의 撤収를 要求하는 共同決議案을 밀고 나왔다. 票決에 붙인 結果는 西方側 決議案이 可決되고 共產側 決議案은 贊 48, 反 48, 棄權 38, 欠席 4로 否決되었다.

그런데 創設 30 年 동안에 유엔 内部의 勢力構造는 크게 變化하여 74 年 現在 原加盟國의 約 3 倍로 늘어난 會員國 總數 138 個國中 第三世界에 屬하는 非同盟中立主義國家가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다. (第 4 次 非同盟國頂上會談에 參席한 75 個國에 다 非同盟運動에 同調하거나 이에 加入하기를 希望하는 10 個 「옵서버」國까지 합하면 유엔에서 85 票를 動員할 수 있다) 이러한 變動過程에서 韓國問題 票決에 있어서의 大韓民國에 대한 相對的 支持度가 어느 地域에서나 繼續 떨어져 왔는데 그 下降勢가 가장 甚한 곳이 第三世界 즉 非同盟圈에서이다. 第 29 次 總회에서 北傀支持國數가 韓國支持國數와 同數를 이룬 것은 처음 보는 일이며 韓國과 유엔과의 關係에 있어 새로운 時代로의 分水嶺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2) 리마會議 — 第 30 次 유엔總會

이어 75年 3月 「큐바」의 「하바나」에서 開催된 非同盟運動 調整局會議에서는 北傀의 非同盟運動加入勸告案을 採択하였고 同年 8月 「페루」首都 「리마」에서 開催된 非同盟國外相會議에서는 北傀를 单独加入시키고 大韓民國의 加入申請은 拒否하였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리마」會議에서는 30次 유엔總會에 對備하여 「유엔 旗下의 駐韓全外軍 撤収, 韓國休戰協定の 平和協定으로의 代替」등을 要求하는 北傀立場을 支持하는 条項을 最終宣言에 包含시켰다. 이같이 高潮된 支持勢를 背景으로 하여 第 30次 유엔總會에서는 史上 처음으로 韓國問題에 관한 共產側 決議案도 西方側 決議案과 함께 通過되는 異變을 낳았다. 이 事實은 유엔이 韓國問題를 둘러싸고 兩陣營間에 伯仲之勢를 들어냄으로써 유엔이 韓國問題에 관한 限 能力의 限界에 到達하였음을 證明하였으며 따라서 今後 韓半島問題는 유엔을 통해서가 아니고 南北韓의 直接對話나 当事者間의 協商을 통해서 解決하는 수 밖에 없다는 論理를 뒷 받침해 주었다.

(3) 콜롬보會議 — 第 31次 유엔總會

北傀로서는 第 30次 유엔總會後에도 國際情勢가 그들에게 有利하게 展開되어 가고 있고 特히 유엔內의 勢力版圖가 그들에게 有利하다고 誤判하든가 또는 美國이 亞細亞에서 漸次 退潮하는 勢力이므로 조금만 時間을 늦추어 간다면 韓半島에서도 共產化統一의 可能性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幻想을 안고 있는 限 南北對話에 応하기를 拒否함과 아울러 유엔 테두리밖에서의 当事者會談에 反對하

고 도리어 韓半島問題를 유엔안으로 繼續 끌어들여서 共產側 決議案을 貫徹시키려고 執拗하게 追求할 것으로 予想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北傀는 76年の 第31次 유엔總會를 앞두고 予定대로 外交策勳을 벌여 8月11日부터 「콜럼보」에서 開催된 第5次非同盟國頂上會談에서 自己들의 強硬路線에 대한 國際的 支持를 얻으려 애썼다. 그런데 当初에 큰 期待를 가지고 120名의 大規模 代表團을 派遣한 北傀에게 失望과 衝擊을 안겨다 줄 程度로 「콜럼보」會議의 雰囲気은 穩健하였다. 그리하여 北傀가 造作한 「北侵說」이 먹혀들어 가지않고 그들의 難航에 부딪치게 되자 이에 唐慌한 北傀는 非同盟會議가 끝나기도 前인 8月16日에 北傀를 支持하는 共產國家 및 非同盟國家들로 하여금 韓半島問題決議案을 유엔事務局에 提出케 하였다. (75年の 「리마」會議때 北傀의 加入을 支持하였던 國家中 相當數가 共同提案國에서 脫落되었다. 實際의 共同提案國은 알제리아, 불가리아, 부룬디, 白露西亞, 中共, 콩고, 체코슬로바키아, 예멘民主國, 東獨, 귀니아, 헝가리, 이라크, 라오人民民主主義共和國, 마다가스칼, 말리, 말타, 蒙古, 폴란드, 루마니아, 소마리아, 토고, 우크라이나, 蘇聯 및 잠비아의 24個國이었다) 同共產側決議案의 內容은 ①韓國에 搬入된 新武器의 撤去등 戰爭危險을 增加시키는 行爲의 中止 ②內政干涉의 排擊과 「두개의 韓國」을 助長하는 行爲의 中止 ③統一을 위한 大民族會議의 召集 ④유엔軍司令部의 解体와 休戰協定의 平和協定으로의 代替등을 要求하는 것이었다.

한편 「콜롬보」會議 終了後 發表된 「政治宣言」中 「第 14 項 韓國問題」部分의 本文은 다음과 같다.

115. 本會議는 帝國主義者들이 造成한 韓半島內의 深刻한 情勢 즉 何時라도 戰爭이 勃發할수 있는 情勢에 대해 深甚한 關心을 表明하였다. 本會議는 帝國主義者들이 戰爭을 挑發하려는 機動을 即時 停止하고 그들이 이 地域에 搬入한 核武器 軍事施設 및 其他의 모든 戰爭手段을 撤去할 것을 強力히 要求하였다.

116 本會議는 全外軍의 南韓으로 부터의 撤收 外國軍事基地의 廢鎖, 유엔軍司令部의 解体 및 韓國軍事停戰協定の 恒久的 平和協定에 의한 代替을 要求하였다.

117. 本會議는 1972年 7月 4日이 南北共同聲明안에 明記된 統一三大原則에 立脚하여 平和적으로 그리고 外部의 干涉없이 自己들의 나라를 再統一하려는 南北韓人民의 鬭爭을 支持하였다.

또한 政治問題에 관한 諸決議中 「第 19 号 韓國問題에 관한 決議」의 本文內容은 다음과 같다.

「1976年 8月 16日부터 19日까지 콜롬보에서 열린 第五次 非同盟國元首會議는 韓國이 長期間동안 分斷狀態로 남아 왔는데 그곳에서 緊張이 날로 惡化되고 있으며 何時라도 새로운 戰爭이 勃發할수 있는 危急한 情勢가 造成되어 오고 있다는 事實에 深甚한 注意를 돌렸다.

오늘날 帝國主義者들은 더욱 많은 軍隊와 核武器를 包含한 大量破壞武器를 南韓안으로 広範하게 導入함으로써 南韓을 侵略을

위한 軍事基地, 核武器를 위한 基地로 轉化시켜 왔으며 戰爭準備를 促進하고 甚至於 核武器마저 使用하는 것을 躊躇치 않겠다고 말하는 등 危險한 軍事挑發言辭를 不斷히 發함으로써 北韓(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에 대한 侵略成脅을 造成해 왔다.

万若에 帝國主義者들의 韓國에 대한 侵略機動이 挫折當하지 않는다면 韓國에서 戰爭이 勃發하고 그것이 亞細亞와 全世界에 擴張될 것이다.

帝國主義者들은 極東에서 強大國間에 「힘의 均衡」을 保存하기 위하여서는 南韓에 外軍과 外國軍事基地를 維持할 것이 必要하며 韓國은 오늘날과 같이 分斷된 채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터무니 없는 主張을 하고 있다.

非同盟諸國은 帝國主義者들이 弱小國의 運命을 제멋대로 作亂질 하여 이들을 犧牲시키는 것을 許容할수 없으며 또한 어떠한 나라를 莫論하고 軍事基地를 設置하여 他國의 國內問題에 干涉하는 것을 許容할수 없다.

外軍占領下에 있는 南韓에서는 壓迫式抑壓이 盛行되어 人民의 民主的 基本權과 自由가 無慈悲하게 蹂躪되고 있다.

本會議는 極에 達한 韓國內의 緊張을 消滅시키고 새로운 戰爭의 危險을 除去하여 韓國의 自主的 平和的 再統一을 達成하는 것이 世界平和를 위해서나 民族自決의 原則과 獨立을 向해 前進하는 現時의 趨勢에 비추어서나 이 以上の 遲滯를 許容할수 없는 緊急한 課業이라고 看做하여 다음과 같이 決議한다.

가. 本會議은 韓國에서 戰爭을 挑發하려는 帝國主義的 策動은 即時 停止되어야 하며 南韓에 搬入된 核武器를 包含한 모든 戰爭裝備과 武器는 撤去되어야 하며 모든 外軍은 南韓으로 부터 撤收하여야 하며 外國의 軍事基地는 撤廢되어야 하며 韓國軍事停戰協定은 平和協定으로 代替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나. 韓國의 再統一은 1972年7月4日의 南北共同聲明에서 闡明된 自主 平和統一 및 民族的 大同團結의 三個原則에 依拠하여 外勢의 干涉없이 大民族會議과 같은 方式의 協商 및 對話를 통하여 韓國(朝鮮)人民 스스로에 의해 實現되어야 한다고 思料하여 本會議은 나라의 自主的 平和的 再統一의 實現을 위해 鬪爭하고 있는 北韓(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 및 全韓國(朝鮮)人民과의 堅固한 連帶를 表明한다.

다. 韓國에서 새로운 戰爭을 挑發하려는 帝國主義者들의 陰謀에 反對하고 어느 國家도 韓國의 分斷을 助長하여 그의 再統一을 阻害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韓國의 自主的 平和的 再統一을 도모기 위하여 非同盟諸國은 國際機構와 國際會議에서 一致된 行動을 取한다.

한편 大韓民國政府로서는 유엔에서의 非生産的인 韓國問題討議를 止揚한다는 立場을 取해 왔으나 共產側이 決議案의 先制提出로 挑戰해 온 以上 이에 果敢히 対応하지 않을수 없다 하여 友邦과

緊密히 協議한 끝에 8月 21日 西方側 決議案을 提出케 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① 韓民族을 위하여 統一이 成就되도록 民族的 和解와 韓半島에서 의 恒久的 平和를 이룩할 條件造成이 最優先的인 것임을 宣言한다.
- ② 南北韓間에 가로 놓인 諸般問題를 協議를 통해 解決하도록 南北對話를 早速히 再開할 것을 要請한다.
- ③ 南北韓 및 其他 当事者들에 대하여 休戰協定の 調整이나 또는 現行 休戰協定을 보다 恒久的인 措置로 代替할 새로운 基盤을 發見함으로써 可能的 限 早速한 時日內에 유엔軍司令部의 解体를 可能케 하도록 早期 協議의 開始를 促求한다.
- ④ 韓國問題에 관한 모든 利害關係者들이 平和와 對話에 有利한 零國氣를 造成하기 위해 最大限 自制해 줄 것을 要請한다.

이로써 票對決이 不可避하게 되어 兩陣營이 모두 得票工作에 專念하던 中 總會開幕 1日을 앞두고 9月 22日 北僞의 要請에 따라 共產側이 韓半島問題에 관한 決議案을 正式으로 撤回하였으며 이에 따라 西方側 決議案도 撤回되었으므로 第 31次 유엔 總會에서는 韓半島問題가 全然 討議되지 않고 넘어갔다.

그런데 北僞가 共產側決議案을 撤回시킨 理由로서는 ① 그 直後에 일어난 8. 18 板門店 蠻行事件으로 北僞의 評判이 共產圈內部에서 까지 失墜되었다는 것 ② 西方側 決議案의 論理가 合理的이어서 非同盟國에 까지 덕혀 들어가고 있다는 것 ③ 이렇게 勢不利한 狀況下에서는 共產側 決議案을 票決에 붙여 보았댜자 前年度와 같

이 通過될 可望이 없다는 것 ④ 北傀가 權力鬭爭, 經濟危機 등 深刻한 内部問題를 안고 있는데다가 毛沢東死亡後 中共의 對外政策이 流動狀態에 있으므로 對유엔外交에 一旦 制動을 걸고 政策과 態勢를 再整備할 必要가 있다는 것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北傀의 決議案撤回措置가 單純한 戰術的 後退나 아니면 政策變化나 戰略轉換을 意味하는 것이냐에 관해서는 斷定을 내리기가 어려우나 大体로 이를 戰術的 後退로 보고 北傀는 답장 來年이라도 勝算만 선다면 유엔에서 또다시 票對決을 試圖해 올 것이라고 내다 보는 側이 많다.

(4) 뉴델리 調整局 會議와 北傀支援聲明

한편 76年의 「콜롬보」 頂上會談에 設置키로 決定된 非同盟運動調整局은 77年 4月 印度 「뉴델리」에서 外相水準의 第一次會議을 갖았는데 이 調整局會議에서 採択된 最終聲明書의 政治事項에 관한 部分에는 韓國問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聲明內容이 収録되어 있다.

『 55 . 調整局은 韓半島情勢를 檢討하고나서 全外軍과 核武器를 包含한 그들의 모든 軍裝備의 南韓으로 부터의 撤収, 外國軍事基地의 廢鎖, 「유엔軍司令部」의 解体 및 韓半島의 平和와 安全을 保障하는 持續적이고 積極적인 平和協定에 의한 韓國軍事停戰協定の 代替를 要求하였다.

56 . 調整局은 1972年 7月 4日의 南北共同聲明에 明記된 統一三大原則에 立脚하여 民族的 團合을 增進하고 外勢의 干涉없이 完全獨立裡에 朝鮮의 平和的 再統一의 達成에 有利한 零國氣를 造成하려는 朝鮮人民의 鬭爭에 대한 支持를 表明하였다』

3. 大韓民國의 對應策

(1) 基本姿勢

75年 8月 「리마」에서 열린 非同盟國外相會議때 우리나라는 南北韓이 모두 加入하거나 또는 모두 加入되지 않게 할 것 즉 可否間에 同等한 地位에 서게 할것을 目標로 하였으나 結果는 北傀만이 單獨加入됨으로써 우리나라가 挫折을 겪었다. 그런데 同加入이 非同盟集團의 北傀偏向에 制動을 걸고 北傀의 單獨加入을 封鎖하려는 短期的 目的에서 推進된 것이었다면 一旦 失敗로 보아야 하겠으나 그것이 非同盟諸國과의 友好親善關係樹立이라는 長期的 目的에서 推進된 것이었다면 한번의 挫折에 拘碍되지 말고 「리마」會議때의 體驗을 앞으로 非同盟諸國과 互惠的 紐帶關係를 맺어나가는 디딤돌로 活用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北傀가 非同盟圈에 大韓民國보다 먼저 基盤을 構築하여 單獨加入한데 이어 非同盟圈 一部國家들로 하여금 北傀의 統一政策에 따르는 共產側 決議案을 共同提議케 하는데 反하여 우리나라가 때로 不悅한 蹉跌을 당하게 된 主因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點을 들수 있겠다. 첫째로 韓國은 安保上 必要에서 美國과 유난히 가까운 盟邦關係에 있어 왔는데 이것이 結果적으로 韓國을

가장 標本的인 親美國家로 第三世界諸國에게 映像지웠고 따라서 第三世界の 反美, 反西歐感情이 물고 오는 「마이너스」效果를 韓國이 뒤집어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北傀가 反帝, 反植民鬪爭의 煽動的 路線을 앞세움으로써 第三世界の 心理를 十分 利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北傀가 對第三世界外交에 있어 中共이라는 積極的 後見者를 가짐으로써 中共의 對第三世界外交에 便乘해 올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얼마 前까지만 해도 第三世界가 韓国外交의 앞길을 가로막고있는 巨大한 岩壁처럼 보였던 것이 最近에 와서는 (73.4年以後) 이 岩壁을 뚫을수 있다는 새로운 希望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樂觀論의 抬頭는 第三世界の 内部的 分立傾向과 全般的 穩健化의 몇가지 徵候, 政治的, 理念的 領域으로 부터 經濟的 領域으로의 重點의 移動, 그리고 韓國과 雙務的 外交關係 乃至 經濟關係를 굳혀 가고 있는 開發途上國의 數의 增加등에 淵由한다. 事實 既述한 바와 같이 「콜롬보」 頂上會議때 「반다라나이케」 首相의 基調演說이나 同會議 結果로 나온 政治宣言과 經濟宣言은 다같이 平和共存과 國際協調에 力點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韓國은 經濟的 側面에서 第三世界國家의 보다 有用한 同僚者가 될수 있는 利點을 가지고 있으니 現在 中近東地域을 中心으로 한 經濟的 進出의 擴大는 앞으로 政治的 關係改善의 可能性을 提供해 주고 있다.

第三世界와 第四世界の 分立可能性이나 第三世界の 穩健化에 대한 安易한 断定에서 이 抵抗의 불력에 대한 우리의 接近可能性을 지

나치게 希望的으로 推定하는 것도 問題려니와 그렇다고 해서 第三世界的 憤怒의 政治, 對抗의 經濟가 일으키고 있는 걸잡을수 없는 騷擾에 지쳐 미리 부터 斷念하고 주저 않는 것도 孤立을 自招하는 不幸한 事이다.

그런데 分명한 것은 世界的인 南北問題의 旋風이 앞으로 相當한 期間동안 사라질수 없는 限 第三世界가 비록 解弛될지는 몰라도 集團的 影響力을 지닌 勢力으로서 存続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韓國外交는 安易한 樂觀이나 性急한 失望없이 長期的 眼目에서 第三世界와 精神的 共感의 領域을 擴大해 나가는 가운데 忍耐깊이 親善關係를 構築해 나가야 한다.

非同盟圈의 反韓態度는 多分히 感情的이다. 「리마」會議때 두드러지게 들어난 바와 같이 南北韓 兩쪽의 主張이나 立場中 어느 쪽이 合理的이나를 가려내기에 앞서 韓國은 親美國家이고 北僞는 反美集團이니 北僞편을 든다는 式이다. 이같이 感情的 零國氣에 左右되는 大規模會議에서 論理的으로 이들을 說得한다는 것은 極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가까운 將來의 非同盟圈會議에서 또다시 우리나라의 加入問題를 提起하는 것은 賢明치 못하다.

또한 非同盟國家들이 싫어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美國과의 紐帶關係를 褪色시킬수는 없다. 現段階로서는 韓美兩國間의 同盟關係야 말로 우리의 國家的 安保와 東北亞의 平和를 保障해 주는 擔保이기 때문이다. 韓美同盟關係에 損傷을 주면서 까지 非同盟諸國과 同一步調를 取할수는 없다는 點에서 우리나라의 對中立圈外交에 는 一定한 限界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로서는 北傀가 第三世界를 통해 無限對決을 試圖해 오는 限은 第三世界안에서도 이에 야무지게 對應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는 유엔總會에서의 韓國問題討議時에 西方側決議案이 通過되도록 得票工作을 한다는 單純한 名分論的 外交에 머물지 말고 統一後까지를 내다보는 長期的인 目標아래 相互利益이 되는 方向으로 幅넓은 外交活動을 展開해 나가야 한다. 韓國自体도 嚴格히 말해서 第三世界에 屬하는 나라이고 第三世界の 힘과 發言權이 커진다는 것은 우리나라에게도 나쁠 까닭이 없다. 그예다 昨今에 와서는 우리나라도 對美依存에서 脫皮하여 自主國防과 自立經濟에 拍車를 加해 나가고 있고 南北對話나 当事者會談을 통한 韓半島問題의 解決을 위해 民族自決的 努力과 自主外交에 注力하고 있다. 또한 南北問題와 關聯해서 우리나라도 그 國際經濟上의 位置를 定立할 것이 時急히 要請되고 있다. 以上과 같은 一連의 狀況은 우리나라가 第三世界와의 關係를 實質적으로 強化해 나갈 必要를 높여 주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한나라 한나라씩 雙務關係를 增進시키는 일부터 優先시켜 相互理解 및 協調의 基盤을 漸進적으로 擴大해 나가는 것이 보다 效果的인 것이다.

(2) 政治協調와 安保統一外交에 대한 支援確保

既述하다시피 第三世界國家의 大挙進出로 유엔안의 勢力構造가 크게 變化하였는데다가 北傀가 이에 浸透하여 유엔軍司令部의 無條件解体 全外軍撤収등 共產化統一에 有利한 條件을 造成하는 方向으로 유엔總會에서의 韓國問題處理를 操作해 왔으며 앞으로도 共產化

統一의 基本政策에 變化가 없는限 繼續 韓國問題를 유엔總會로 물
고 票 對決을 強要해 을 것으로 予想된다. 우리나라로서는 非生
産的인 유엔總會에서의 韓國問題討議를 止揚하여 (즉 脫유엔 또는
超유엔하여) 韓國問題를 南北對話 및 当事者會談의 次元으로 移管할
것을 追求하고 있지만 北傀의 挑戰으로 유엔總會에서의 票對決이
不可避할 경우에는 이에서 外交的 勝利를 걸을수 있도록 彈力性있
는 유엔外交戰略을 樹立하고 이에 대한 支持를 確保하기 위해 第
三世界 外交를 強化해 나갈 것이 當面課題로서 要請된다. 여기에
있어서는 첫째로 第三世界諸국이 特別한 負擔感없이 可票를 던질
수 있도록 建設的이고 合理的이고 論理的 說得力이 있는 決議案內
容을 盟邦과의 緊密한 協議下에 作成할 것이 緊要하다.

76-7年에 걸쳐 韓半島周辺四大国안에서 權力變動이 생긴後 이들의
對韓半島政策이 再定立되고 이들과 南北韓間의 利害가 再調整되는
局面에 있거니와 美國은 大韓民國과의 協議下에 駐韓美地上軍의 段
階的 撤收計劃을 確定지음과 아울러 「키신저」構想을 繼承하여 南
北對話, 当事者會談, 南北韓交叉承認등을 繼續 推進할 方針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 우리나라로서는 北傀의 挑戰的인 對決政策에
도 不拘하고 同族自虐 없는 平和統一이라는 次元높은 政策構想에 조
금도 變動이 없으며 繼續 南北對話를 誠實히 進行해 나가려 하고
있다는 것 유엔決議에 따라 韓半島平和體制 構築과 平和統一達成을
위해 北韓 및 韓半島周辺 強大国들과 協商할 万端의 準備를 갖추
고 있다.

는 것등을 國際的으로 널리 弘報하여 第三世界諸國을 包含한 유엔會員國의 壓倒的 支持를 確保할 것이 緊要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第三世界속의 外交基盤을 擴大하여 北傀에 대한 優位를 堅持해 나가야 한다. 6.23 宣言을 轉機로 우리나라는 이미 積極的 開放外交를 展開해 오고 있거니와 앞으로 第三世界進出에 있어 더욱 果敢한 進就性을 보여야 한다. 그 具體的 方案으로는 未修交國에 까지 修交範圍를 넓히고 常駐公館을 增設하고 現地外交活動을 強化할 것 國際機構 및 國際會議에 積極 參與하고 可能的 限 國際會議를 우리나라에 誘致하는 가운데 第三世界諸國과 友好關係를 增進할 것 등을 들수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날의 유엔안에서의 投票性向을 分析해 보면 우리나라와 여러가지 接觸을 갖어 깊은 關係에 있는 나라만이 持續的인 支持를 보내주고 있음을 알수있다. 따라서 보다 根源的으로 重要的 것은 基本的으로 利害가 一致되는 國際問題나 共同關心事에 관하여 巨視的觀點과 國際道義的 立場에서 理解하고 精神的으로 支援하고 政治的 協調를 繼續해 나간다는 것이다.

(3) 經濟, 社會, 文化面의 相互利益追求

第三世界諸國과 修交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安保 統一問題와 直結된 重要性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統一達成의 前後를 莫論하고 相互協調와 交流로 雙方의 國家利益 特히 經濟的 實利를 圖謀한다는 長期的 目標의 達成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點에서 그 自体로서 獨自的인 意義와 價值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第三世

界諸國에 대한 政治一辺倒의 接近을 넘어서 經濟, 社會, 文化, 技術 등의 分野에 이르기 까지 多角的인 協調關係를 增進하여 雙方의 本源的 國家利益에 互惠的으로 寄與할 것이 緊要하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날 南北問題가 크게 浮刻되어 先進國과 開發途上國間의 經濟協調가 強調되고 있거니와 우리나라는 64年 「제네바」에서 열린第1次 유엔通商開發會議(UNCTAD)에 採択된 77個國宣言(國際通商의 一般原則 12個項目)에 署名하였고 66年 10月 「알지에」에서 열린 開發途上國關係會議에 採択된 經濟憲章에 署名하였고 그後 여러차례의 유엔通商開發會議에 繼續 參席해 오는등 開發途上諸國과 共同步調를 取하여 國際的 經濟協調增進에 一役을 맡아 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 必要性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 具體的 方案으로서는 첫째로 第三世界諸國과의 通商을 積極的으로 增進해 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商品輸出을 增大시킬 뿐만 아니라 相對方으로 부터도 輸入하여 相互利益을 圖謀함으로써 雙方의 通商增進意慾을 鼓吹시켜 나갈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第三世界諸國에 대한 技術援助를 強化하여 相對國의 經濟, 社會開發에 協調해 나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財政形便이 許容하는 限 이러한 技術協調의 經費를 우리나라側에서 負擔하고 그 分野도 醫療關係뿐만 아니라 農林, 畜産, 鑛業등에 이르기 까지 擴大하면 더욱 効果的일 것이다. 셋째로 教育, 科學, 文化分野에 있어서는 相互交流를 勸奨한다는 것이다. 第三世界諸國과도 文化協定을 締結하여 教授, 學生, 言論人, 芸術人등을 交流하고 文物을 交換하고 可能하면 文化行事까지 輸番制로 開催하는 것이 緊要하다.

参 考 文 献

- A . W . Singham and Tran Van Dinh, eds., From Bandung to Colombo; Conferences of the Non-Aligned Countries, 1955-75, Third Press Review Books, New York, 1976
- Fifth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of Non - Aligned Countries, Colombo, 16 - 19, August, 1976, Fundamental Texts : Declarations, Resolutions, Political Programmes for Economic Cooperation, Colombo, Sri Lanka, 1976
- Conference of Foreign Ministers of the Coordinating Bureau of Non-Aligned Countries, New Delhi, 1 - 11, April, 1977, Final Communique ; Resolution on the Common Fund, New Delhi, 1977
- Geoffrey Barraclough, Wealth and Power : The Politics of Food and Oil,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August 7, 1975
- Ali A. Mazrui, "The New Interdependence, " in Guy F. Erb and Valeriana Kallab, eds., Beyond Dependency ; Development Council, 1975
- W. Andrew Axline, "Underdevelopment, dependence and integration : the Politice of regionalism in the Third

World,"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nter 1977,
Vol. 31, No. 1, Sponsored by the World Peace Foundat-
ion and Published by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Tony Smith, "Changing Configuration of Power in North -
South Relations since 1945," International Organiza-
tion, Winter 1977, Vol. 31, No. 1

外務部外交研究院 「韓國의 對中立國外交」 서울, 1968

李承憲 「韓國對中立國外交의 方向」 外交誌 (外務部外交研究院刊) 第
第1号, 1968.9

李承憲 「對非同盟圈外交의 條件과 限界」

“國際問題” 1975年4月号(第6卷第4号)

河璟根 「史的考察로 본 非同盟國」

朴在圭 「非同盟의 政治構造的 特性」

金鴻俊 「北傀의 對非同盟國 接近分析」

成炳旭 「韓國의 對非同盟國 外交方案」

以上 四篇은 “國際問題” 1975年 11月号(第6卷第11号)

「特輯; 第三世界의 國際的 特性」에 収録된 論稿임

柳正烈 「對亞. 外交力의 增加를 위한 方策」 “政經研究”

1973年6月号 「特輯; 韓國外交의 試鍊과 対応」 所載

朴英熙 「國際政治속 非同盟運動과 中共」

“政經研究” 1973年7月号

金 應 「第三世界外交의 새 戰略」 “新東亞” 1977年3月号

成炳旭 「新韓國外交論」 “月刊中央” 1977年4月号

車基壁 「내서날리증은 어떻게 展開될 것인가」 「現代의 大課題

50選」 “月刊中央” 1976年1月号 別冊附錄 所載

金鳳九 「國際經濟와 第三世界」 “國際問題” 1975年11月号

韓弘淳 「世界經濟의 多極化와 資源問題」

“國際問題” 1977年3月号

金世源 「新經濟秩序胎動과 美國의 役割」

“國際問題” 1977年7月号

林光元 「파리南北會議」 “國際問題” 1977年7月号

1. 1950年10月1日，中华人民共和国成立。

2. 1954年9月，第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在北京召开。

3. 1956年9月，中国共产党第八次全国代表大会在北京召开。

4. 1958年5月，中国共产党第八次全国代表大会第二次会议在北京召开。

5. 1960年6月，中国共产党八届十二中全会在北京召开。

6. 1962年9月，中国共产党八届十二中全会在北京召开。

7. 1966年5月，中国共产党八届十二中全会在北京召开。

8. 1969年4月，中国共产党第九次全国代表大会在北京召开。